

정책 2018-01

2018 평등한 젠더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Contents

목차

2018 평등한 젠더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I. 평등한 젠더

- 1. 평등한 시리즈 7
- 2. 평등한 젠더 9

II. 갈산·삼산권

- 1. 갈산·삼산권 집담회 15
- 2. 녹취 내용 17

III. 부평권

- 1. 부평권 집담회 43
- 2. 녹취 내용 45

IV. 산곡권

- 1. 산곡권 집담회 57
- 2. 녹취 내용 59

V. 십정권

- 1. 십정권 집담회 77
- 2. 녹취 내용 78

VI. 청천권

- 1. 청천권 집담회 97
- 2. 녹취 내용 98

VII. 부개·일신권

- 1. 부개·일신권 집담회 121
- 2. 녹취 내용 122

Chapter I

2018 평등한 젠더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평등한 젠더

1. 평등한 시리즈
2. 평등한 젠더

I. 평등한 젠더

1. 평등한 시리즈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 2014.11.29.)

1) 문화다양성 의미

- 문화다양성 :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
- 문화적 표현 :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이를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

2)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 목적 :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 사업 종류 : 문화다양성주간 행사, 문화다양성교육, 문화다양성아카이브 구축, 무지개다리 사업 등
- 사업 내용 :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 수립, 시행, 조사연구,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의 노력을 구체화한 사업 일체

3) 무지개다리 사업 ‘평등한 시리즈’

○ 평등한 시리즈란?

- 전국의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등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무지개다리 사업 중 부평에서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는 단계별 확산 과정.

-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 문화적 차이를 배경으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가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별 평등한 프로젝트를 진행.
-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정책·자원 개발, 콘텐츠 개발·보급,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평등한 W(we 우리), M(market 마켓), G(gender 젠더), R(research 조사연구), N(network 네트워크), C(club 소모임), P(party 파티), E(education 교육), A(Attention 시선), M(mapping 지도), F(festival 축제), P(performance 공연), J(journey 여행) 등으로 확대

○ 2018년 평등한 시리즈 사업

① 인식 확산

- 평등한 W(we 우리) 릴레이 인터뷰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수에게 질문을 던지는 릴레이 인터뷰 진행. 최근 이슈가 된 미투운동에 관하여 부평의 인구 56만을 대표하는 56명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보급.
- 평등한 M(market 마켓) 휘파람 마켓
문화다양성 주간에 이주민, 여성과 관련된 주제의 독립출판 마켓을 열어 독립문화를 알리고, 독립출판물, 소품 등의 판매, 강연,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 젠더관련 이슈를 대중적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

② 정책자원 개발

- 평등한 G(gender 젠더) 권역별 집담회
부평 비영리시민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운영하는 공간의 위치를 기준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체의 목적, 활동범위, 필요에 맞물리는 이주민(북한이탈주민, 다문화)·여성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된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누구나 발언자가 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담회를 진행.
- 평등한 R(research 연구) 부평 여성 공동체 현황 및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여성을 중심으로 소수자의 표현활동과 안정을 지지하는 자발적 공동체의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공공지원 방안과 제도를 모색.

③ 추진기반 마련

- 평등한 N(network 네트워크) 실행단체 네트워크 모임
부평에 소재한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실행단체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해, 평등, 공존을 기본으로 하는 평등한 시리즈를 함께 운영하고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함.
- 평등한 C(club 소수모임) 소수모임 지원
이주민(난민, 다문화), 여성(페미니즘, 갭년기) 등과 관련된 실행단체 네트워크에 속한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삶의 양식을 드러내고, 공동체의식과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인문적, 문화적 활동을 하는 자율적 소모임을 지원함.

2. 평등한 젠더

1) 개요

- 사업명 : [평등한 젠더] 권역별 집담회
- 기간 : 2018년 6~8월
- 대주제 :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 운영방안 : 부평 여성·이주민관련 단체와 함께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특성에 맞는 주제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위치한 단체 공간에서 주민, 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집담회를 열.
- 내용 : 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슈를 토대로 소수자들의 어려움과 고민,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는 자리 마련
- 주최 : 부평구문화재단
- 주관 : 부평구문화재단,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부평공예마을,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희망마을,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평화렛츠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목적

- 부평 권역별 현장에서 여성, 소수자들의 이야기와 고민을 담는 장을 열.
- 삶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성과 소수자들이 함께 모여 문화정책의 유효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열린 토론을 거치고자 함.
- 논의를 바탕으로 협업의 경험을 만들고, 집담회에서 나온 방안을 토대로 효과적인 부평 문화다양성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 지역 공간이 의견표출과 공유의 장이 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역 공간을 활용하고 참여하게 하여 공간·사람·활동의 확장을 이끌어내고자 함.

3) 권역별 집담회 주제 및 주관처

권역	주제 및 일시	공동주관
갈산 삼산권	먼저 온 통일을 겪는 이들의 담론 7월 16일(월) 16:00 - 18:00	어울림 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부평권	더불어 함께하는 여성들의 마을살이 7월 24일(화) 16:00 - 18:00	부평공예마을
산곡권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과 일자리 7월 26일(목) 19:00 - 20:30	우리동네 희망마을
십정권	젠더폭력의 불안과 공포에 대처하기 8월 10일(금) 19:00 - 21:00	인천여성민우회
청천권	외국인 생활과 정책의 이모저모 8월 24일(금) 13:00 - 15:00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개 일산권	중년의 사춘기, 갱년기 여성건강 8월 29일(수) 19:00 - 21:00	인천평화렛츠

4) 시사점

○ 사회 안정을 보완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의 발굴 및 보급 필요

- 소수자 개인별로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은 제각각 다르지만, 여성과 이주민들의 근

본적인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겪는 (출산, 육아, 유리천장, 능력여하 등에 따른)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 자아실현 및 사회활동(인정) 기회 부족, 차별적인 시선에 대한 괴로움, 빈번한 범죄 노출 등으로 귀결됨.

- 문화표현의 기회,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 등 문화 관련 분야는 행복한 가정생활, 일자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등에 관한 필요에 비해 부차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음.

○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

- 한국인(남자)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거나, 종교집단에서 활동하거나, 소수집단 지원기관·단체에 속하는 경우 개인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거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빈도가 높아 실제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는 경험을 갖게 됨.
- 소수집단 내에서도 미혼자, 1인 가구, 한부모 등 개별화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게 드러나며, 홀로된 이들을 위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자기표현 과정을 통해 소속 집단과 일체감을 느끼면서 최소한 소수자로서 당면한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확대시켜 최소한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소수자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거나, 생활 접점이 없어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들도 간접적으로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이 이번 집담회의 성과였음.

○ 소수자와 다수자가 함께 주체가 되는 활동기회 필요

- 소수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 이전에 소수자가 자신을 드러내어 다수자들이 그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빈번해져야 하며, 소수자 스스로 다수자를 이해하는 시도와 한국사회의 문화와 규범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함.
- 소수자 스스로 주체적인 행동과 다수자가 어울리는 빈번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시급하고 중요한 생활문제에 부딪쳐 후순위로 밀리면서 극복하는 경우가 드뭄.
- 다만 소수자의 단체를 만들고 이끄는 몇몇의 비전을 가진 리더가 이끄는 행사를 참여하거나, 후원을 하는 등의 참여로 만족감을 느끼므로, 실제로 소수자 단체들의 역할과 활동에 힘이 실려야 하는 것으로 보여짐.

5) 논의 한계점

○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개 석상의 한계

- 일반 대중보다는 단체 및 관련분야 관계자 중심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집담회였음에도 문제점을 발언하는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고 솔직한 발언을 자제하거나 미화시키는 경향이 보임.
- 특히 공공지원을 받는 단체의 경우 본인들이 언급한 내용이 기사화되거나 기록으로 남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신의 신분과 생각을 드러내는 과정에 위협을 느낀다고 전함.

○ 여성관련 이슈 및 문화정책 의제 발견의 한계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경력단절자, 자영업자, 폭력 피해자, 갭년기 중년 등 소수자들 중 젠더관점의 발언을 해줄 수 있는 여성을 섭외하여 진행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자영업자(마을기업) 등 일부 대상의 경우 소수자로서 당면한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나, 그 이상으로 세분화된 여성의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음.
- 또한 이주민들의 여성관련 첨예한 문제는 성적 유린, 가정 폭력 등 민감한 사안인 경우가 많아 집담회 내에서 구체화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 당초 부평지역의 여성과 관련된 세부 주제를 다루려고 했으나 여성들의 고민점이 연령대와 세대가 거쳐감에 따라 개별적 어려움이 해소되거나 희석되는 경향이 있어 여성 스스로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Chapter II

2018 평등한 젠더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갈산·삼산권

1. 갈산·삼산권 집담회
2. 녹취 내용

II. 갈산·삼산권

1. 갈산·삼산권 집담회

1) 개요

- 주제 : 먼저 온 통일을 겪는 이들의 담론
- 일시 : 2018년 7월 16일(월) 16:00 - 18:00
- 장소 :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갈산동 377-7)
- 진행 :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 내용
 -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서로 다른 우리들의 이야기
 - 일반 사회복지, 문화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제안

2) 요약

○ 북한 생활상

- 북한에서 여성은 가정, 살림을 책임지는 가장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에게 인정을 받지 못함.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혼인도 여자들이 대부분 준비함.
- 권위적인 체계의 북한에서는 남성이 폭력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미디어를 통해 북한은 남한의 70년대 생활 모습과 비슷하게 비춰지지만, 현재는 시장개방이 되어 휴대폰, 문자메시지, 영상통화도 가능하다고 전해짐.

○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이유와 한국 정착 과정

- 개인 신상의 위협이나 생존권, 강압적인 체제 때문에 북한을 떠나 한민족인 남한으로 들어오지만 한국서 스스로의 존재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됨.
- 문화,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고민하면서 한국에 온지 7년~12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착하는 과정이라 스스로 여김.

II. 갈산·삼산권

- 남한 체제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역량이 다르고, 보편적인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남한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개별 성향에 따라 남한에서 스스로 생활을 개척하거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원제도에 기대는 사람은 빈곤과 배타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인천의 경우 부평에는 100여명의 소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나, 논현동에는 다수가 거주하며 논현동에는 자조모임도 존재함.
- 북한 이탈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에 이송되거나, 이송 후 한국 정착과정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음.

○ 북한이탈주민이 맞닥뜨리는 편견과 해소 방안

- 북한 이탈 과정에서 겪는 체력의 한계 등으로 인한 행동이 북한이탈자 집단의 불성실함으로 비춰지는 등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잘못이나 일부의 사례를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잘못으로 일반화시켜 북한이탈주민과 일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더러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많지 않아 다수의 한국인들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편견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짐.
- 진실한 대화와 소통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의 관계와 편견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진심이 통한다면 언어나 문화의 차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김.

○ 통일에 대한 의견

- 먼저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바람을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통일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논의해야 함.
-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다양한 과정을 갖춰 나가야 함.

○ 북한이탈주민 복지제도에 대한 제안

- 지역마다 사회복지센터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많아서 불편을 호소하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지원을 잘해주는 편이어서 어렵지 않게 극복하고 있음.
- 국가가 협조적으로 복지제도를 제공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검토되지 않음.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지만 대상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보임.

II. 갈산·삼산권

- 한국의 지원센터는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책(지원) 대상에 미치는 과정을 세심하게 설계하지 않는다고 여겨짐.

2. 녹취 내용**권인순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본부장**

참석해 주신 사단법인 아침을 여는 사람들 대표님, 어울림이끌림 연구위원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님, 이사님, 부평구문화재단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집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이하다이다.” 늘 상 들은 이야기입니다. 군자는 조화를 꾀하고, 자기와 같길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배척한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신영복 선생이 담론이라는 마지막 책에서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약 2500년 전인데, 그 시대는 약육강식시대였어요. 그 당시엔 국가 간에도 같은 편이 되면 합의하고, 안 되면 치고 다스렸습니다. 국가만이 아닌 사람도 그랬습니다. 군자는 이 조화를,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군자는 다양성을 인정해서 포용을 하지 결코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다스리려고만 하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지요. 저는 그 대목에서 우리 시대도 그 시대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요. 새터민, 여성, 이주민문제들이 주류사회에서 슬쩍 빗겨난 게 아닐까. 이 시대의 담론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 우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강력하게 소리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수가 되기 때문에 소수의 얘기도 들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시대가 배우기를 단 일민족으로 배우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것도 공론화된 것이지만, 장경론이라는 분은 위그르 출신이라고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개성 벽란도에 보면

II. 갈산·삼산권

아랍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모스크가 있었을까요. 곡부 공씨가 공자에서 넘어왔다고 하고 화산씨는 베트남에서 넘어온 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크고 다리가 긴 게 남방계, 눈 작고 다리 짧은 사람이 북방계라고 합니다. 우리도 전형적으로 남방과 북방이 충돌해서 다문화가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있다 보니 마치 단일민족처럼 되었다고 하지요. 오늘 말씀 드릴 것은 다문화중심의 어울림이끌림은 새터민과 여성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비주류를 다룸에 있어 화이부동해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편하하지 않으며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장, 어울림이끌림 운영위원

다문화관련 박사과정 중이라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병철 회장님과는 재정착난민과 관련해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다문화박사과정 연구를 하지만 외국인정책 관련해서 30년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현장에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내용에 대해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본부장

제 소개를 안했었는데 저는 어울림이끌림 본부장 권인순입니다. 마지막 두 분은 오늘의 집담회를 이끌어주실 분이고 다음은 전체 집담을 이끌어 가실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마이크를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담회라는 모임을 부평구문화재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격이 없이 마을에서 친지 모임과 대화하는 것처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두 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주영 새터민(가명)

저도 집담회는 처음 참석해봤고, 먼저 통일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각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궁

II. 갈산·삼산권

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새터민(가명)

저도 이 자리는 처음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오늘 참석해주신 신희식 회장님도 그동안 많은 세미나를 참여하셨는데, 마을에서의 대화나 나눔이 되게 진정성이 있고 굉장히 신선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행하면서 두 분께 손을 들면, 내 얘긴 여기까지라고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모든 발상의 전환이 대체로 문제를 전이하는 거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문제가 정확히 규정될수록 효율성이 빛날 것으로 보이고 모두가 관심된 통일에 대해서는 듣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남한에 입국할 때 무슨 기대를 하면서 입국을 하셨습니까?

유주영 새터민(가명)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를 많이 하고 경찰에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니 한국으로 가면 좋지 않나 해서 아무 부담감 없이 출발했어요.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맨 처음에는 사실상 남한에 대한 동경보다는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생활하다보니 어려워서 차후로 선택하게 된 곳이 한국이었다는 것인가요? (네)

이선희 새터민(가명)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북한 사람들이 떠날 때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상의 위협이나 생존권 때문에 대체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북쪽사회에서는 우리의 생존권이나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도 존재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되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이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내용이 통일인데,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서 자그맣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통일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이선희 선생님은 통일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계신가요?

이선희 새터민(가명)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북한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통일에 대한 이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사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나도 이 사회에 온 것이 북한상황에서처럼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통일은 거시적인 관점이고, 당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신분에 대한 자유,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

은 없으셨나요?

이선희 새터민(가명)

처음 여기 올 때 불안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불안이 너무 컸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적응하기까지 6개월 동안 쌀을 10KG밖에 못 먹을 정도로 불안했어요. 저희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어떤 제도적인 매개체를 만나서 적응할 수 있었나 하는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저희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사회복지재단 및 기관들이 있는데 실제 찾아갔을 때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차이를 줄여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용할 줄 모르고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괴리인 것 같아요.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그러면 정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정착이 다 잘 되었다고 보시나요?

이선희 새터민(가명)

매 시기에 생각하고 원했던 현실에 맞닥뜨리는 저를 발견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의 위치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해 왔습니다. 정착을 했느냐 마느냐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정착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유주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 온지는 얼마나 되셨죠? (12년이요)

이선희 선생님은요? (7년이요)

유주영 새터민(가명)

충분히 공감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정착을 하기 까지는 적어도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나 환경에 의해 북한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파악하기에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분이 한국 사람들이 보는 북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으면 예를 들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선희 새터민(가명)

편견이라기보다 개인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갈 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일단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통일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왜죠?

이선희 새터민(가명)

이사님 저를 아시잖아요. 몇 번 만났죠? (한 10번 채 안되죠.)

그러니까요.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밖에 못 만나는데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한 번을 만나도 두 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그런데 이선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는 건가?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이선희 새터민(가명)

저는 소외 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유주영 선생님은요?

유주영 새터민(가명)

저도 한국에 와서 대학공부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가 소외 시킨다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구청 같은데서 새터민들을 대할 때 받았던 것 같아요. 정착을 잘하는 사람들은 구청 같은 곳에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찾아갈 텐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구청 공무원들의 말을 잘 이해 못하죠. 그럴 때 어느 한 개인을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새터민에 대한 이야기로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터민 상대하기를 꺼려하는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이 저희 센터가 처음 개소식할 때는 잘 몰랐는데, 1)구청장님도 다 초대한 후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재네는 뭘 할 줄 안다고 저런 걸 하느냐라고.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 북한 분들이 대한민국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정착기간이 10년이라 그랬잖아요. 북한 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때가 2000년대 중반이예요.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딱 10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새터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잘 하는 사람은 정착을 잘해요. 수모를 당하더라도 그걸 견디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몸이 아파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핑계를 대며 정부에 매달리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1) 유주영씨는 북한탈북여성을 지원하고 있다.

II. 갈산·삼산권

가 사회적인 위치에 갔을 때 거기에 새터민이 모여 있는데 그중 한 명만 잘못하면 새터민 전부가 잘못된 양 치부하는 일반화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그건 아무래도 남한이든 북한이든 잘못된 표현으로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자리 적십자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해서 봤는데 다문화 센터하고 같이 적십자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우리 북한 분들도 초대해서 행사하는데 그 분들이 왜 우리를 다문화 행사에 초대를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다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선희 새터민(가명)

보통 북한 사람들에게 본인이 다문화에 속해있는 것을 아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걸 대학에 들어가 사회복지 과목을 수강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저 혼자 북한 사람이었는데, 그 교수 앞에서 “저희가 왜 다문화죠?” 라고 물었어요. 당신들이 다문화를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했어요. 통일을 한다고 하면서 학문적으로 규정짓는 어원에서조차 갈라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원에서부터 우리가 접근하기조차 싫다는 것이죠.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그럼 이선희 선생님께서는 다문화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선희 새터민(가명)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것부터 깨고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시급한 문제는 일단 살아남는 문제거든요.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다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할 때에 표현들이 공감이가나요?

유주영 새터민(가명)

공감이 안가죠. 툭 깨놓으면 다문화가 아닌데 정책적인 언어를 보면 분류하기 애매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분명 다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사실 우리가 단정하기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혹시 다문화에 대해서 학문적인 설명을 잠깐 들어도 될까요?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장, 어울림이끌림 운영위원

우선 사람들은 다 묘사를 하거든요. 모양도 묘사하고 생각도 묘사하고. 5년 전에 대표성이 있는 중국동포 분을 20여명이 모여 밥을 먹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분들인데 다 각자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할아버지나라에서 따뜻하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조선족은 왜 그래 그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왜 한국 남한에 있는 이들이 조선족 동포를 비아냥거리며 으스스대느냐에 대해 오래 고민하고 분석해봤더니 결국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모르느냐? 자기는 모습이 비슷하고 한국말을 하니까 동포이고 남한에 오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받아줄 줄 알았는데 막상 남한 사람들과 생활할 때 방식이 너무 다르고 민족의식, 역사의식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합니다. 왜냐면 입시공부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는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에 요청하기로 각계각층의 동포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달라, 몰라서 무시당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길 합니다.

II. 갈산·삼산권

조선족동포가 한국에 들어온 지 30년 되었습니다. 90년도부터 약을 상당히 많이 갖고 서울 인근에서 팔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 70만 명 정도 들어 와있습니다. 30년 전 상황 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졌죠. 현장에서 일하는 것, 옷 입는 것, 법규, 질서와 관련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문화라는 용어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을까하고 이야기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왜 다문화냐, 헌법에 나오는 동포고 한 나라 사람인데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체할 용어가 없어요. 특별한 대안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주셔야 연구하는 사람들도 고민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요. 대체 용어가 없어서 그럴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입니다. 사실 문화나 환경, 체제가 달라서 달라졌을 뿐이지 사람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많이 비슷해지고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새터민(가명)

그런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문제제기할 데가 없습니다.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경인일보 기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텐데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들은 저분들은 예사롭게 보지 않을 거예요. 시민의 목소리, 문헌 목소리들을 잘 녹아내실 분들이 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동포라고 생각했는데 다문화라고 하는 상대적인 입장 차이에 대한 의견을 잘 어우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를 보다보니까 너무 북한 동포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국경을 통과해서 넘어올 때는 정말 한 순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보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의 공포를 갖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북한에 통화를 하면서 너 제발 남한에 들어오지 마라.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절대 들어오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주영 새터민(가명)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많이 발전한 상태의 국가이고 그런 곳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 사회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에 거기서 공부를 하고 발전하고 자리를 잡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굳이 여기 와서 고생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 새터민(가명)

저는 여기 와서 슬픈 현실이 뭐냐면,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로 올 때는 체제적인 극복이나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이 체제를 극복하는데 어떤 발전적인 단계를 거쳐서 극복하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데 국가가 얼마나 협조적이고 시스템이 따라주느냐 하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남한이라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데는 이 체제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교육 수준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개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 없이 이 사람들이 한 국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현재 사회복지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적응이 필요한 북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많은 얘기를 듣는 등 대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방금 이 자리에 새터민 한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또 한명의 새터민으로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김현애 선생님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그때 한 순간에 느꼈던 공포가 지금의 삶 속에서 느끼는 공포보다 작나요?

김현애 새터민(가명)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탈북을 할 결심을 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살고 있는 형편이 녹록치는 않아도 그때만큼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느낀 감정은, 북한사람으로서 이 나라와 국민에게 미안하고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를 헌법에서 탈북민으로 인정해주지만 솔직히 우리 개인은 대

II. 갈산·삼산권

한국에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왔을 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게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살만하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북한에서 살 때는 외국에 살 생각은 못했어도 내가 한민족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은 하나고 어떤 땅은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나, 언제쯤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요. 사람은 똑같이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자유롭게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한국에 정착한 후 여기 계신 다른 두 분에 비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대화하시면서 남한 사람들하고 표현의 차이점이 있는 걸 느끼나요? 어떤 게 있나요?

유주영 새터민(가명)

사실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 분들도 느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적응을 해가면서 힘들고 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와서 정착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긴 힘들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한과 북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우리 같은 환경을 걸어오지 못한 남한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해도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대는 일부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가 탈북해서 입국하기까지의 과정은 한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응석에 가깝습니다. 국경을 넘어올 때의 공포는 한 순간인데 지금은 힘들어서 매일 매일이 공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는 항상 여기 와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기대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과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근데 정착을 못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준 쉼터들이 감옥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저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희 선생님은 표현 때문에 어려웠던 적은 없으세요?

이선희 새터민(가명)

조선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어감이 주는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그 어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통일 이전의 과정이 없는데 이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의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폐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문화센터에 있어봐서 아는데 가장 큰 불만이 그거였습니다. 결국엔 실적을 따지고 듣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실적에 맞춰져있어서 대상의 고통은 고려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센터의 시스템은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과정이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생활하면서 표현을 통해서 나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못 알아듣지 하는 게 있나요?

김현애 새터민(가명)

보통 한국 사람들이 흔히들 쓰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다음에 뵙겠습니다”나, “다음에 식사 같이 하자”거나. 그러면 다음을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 약속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이런 게 문화 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에서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부대끼며 살 때 일에서나 말에서나 진실하기만 하면 일이나 행동이든 다 소통이 됐습니다. 약간의 언어나 문화차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타인에 대해 다른 어떠한 특성에 대한 편견 없이 내가 얼마나 저 사람에게 진심 어리게 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같이 호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지금도 충분히 잘 돼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도 숙제를 내주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생각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등에 대한 피드백도 해줍니다.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복지제도가 잘돼있다

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을까요?

김현애 새터민(가명)

지역마다 사회복지센터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되게 많습니다. 특정 사람이 불편을 호소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덕분에 지원을 잘해줘서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치료중인데 해마다 전화주고 관심을 가져줍니다.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우리 선생님은 아드님이 치료받는데 어려운 부분을 사회복지안전망을 통해서 혜택을 받아 제도가 잘 돼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유주영 선생님은요?

유주영 새터민(가명)

저는 두 분 말씀 다 공감을 합니다. 저도 센터를 운영하고,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내주는 보조금 같은 이야길 들어보면 실적 면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굳이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 부분에서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점문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혜택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 분들도 못사는 사람이 많은데 국민임대든 영구임대든 주고, 집을 못 받으면 쉼터형성도 되어 있고요. 그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혜택을 잘 주는 것이라고 얘길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문제를 다 꼬집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혹시 해외 체류 시나 국내 체류 시에 도움 받은 분들이 있나요?(김현애 : 대부분 목사님이거나 선교사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떻게 소통하나요?

유주영 새터민(가명)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탈출 후 조국에서 7년 동안 북한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상대하지 않았습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북한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실정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1년을 살다가 자수해서 국정원에 들어왔는데, 국정원분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중국에서 고생한 것은 고생이 아니었던군요. 한국에 있는 북한 분들을 보면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북한에서 잘산 분들은 여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북한에서 힘들게 산 사람은 여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은지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취업하는 데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취업을 많은 분들이 못하실까요?

유주영 새터민(가명)

취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회사 규칙이 다 달라서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칼퇴근을 하는데 여긴 연장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취업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했다가 나오는 경우가 몸이 따르지 않아서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사람 중 복송됐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체력이 못 따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3년 그 일을 꾸준히 하면 적응이 되는데 일자리에 들어갔다가 그만두는 분들을 보면 1~2개월에 있다가 그만두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남동구청에서도 취업상담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취업시켰는데 이유 없이 그만두는 사례가 다 그런 이유더라고 합니다. 생산효율이 단시간에 빨리 나아하기 때문에 북한에서처럼 얘기하다가 일하다가도 못하고, 여기서는 계속 집중해서 일 해야 될 뿐더러, 상하관계가 정확합니다. 북한에서는 반장님을 쫓아가서 속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는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고, 그걸 몰라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김현애 선생님은 직장생활을 하셨나요? 또한 취업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김현애 새터민(가명)

네 했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체력이 못 따라갑니다. 남동공단에 있는 회사에서 했는데 부품 자체가 다 크고 라인 작업입니다. 맨 처음 했을 때 몸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조업 공장 업무 강도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2-3년 차인 한 북한 남자 분은 아직까지 약을 복용하며 새벽부터 현장 일을 합니다. 열심히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현장에서는 북한사람 자존심을 세우며, 일에서는 자기 힘들어하는 스타일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점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회중에서 혹시 질문할 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B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사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문화 같은 경우는 다문화 센터에 의해서 많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터민 같은 경우는 남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나요?

유주영 새터민(가명)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한 가지가 있다면 논현동에 남북통일 코리아라는 탁구 클럽이 있어요. 처음에는 서먹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시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현애 새터민(가명)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새터민도 있지만 봉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한국분이세요.

C

취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유주영 새터민(가명)

지금은 취업 같은 경우에는 잘 돼있어요. 남동구청도 취업상담사가 있고, 문화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돼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주변 연락을 통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잘 얻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을 보면 정착을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빨리 정착을 해요. 보통 한국 분들이 생각하기에 정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새터민을 만나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본인의 환경에 맞게 정착을 곧잘 해요.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한국에서 집을 사서 나가는 분들도 꽤 많아지기 시작하고, 아마 10년 후에는 더 안정적인 생활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30%정도 되는 분들이 힘들어하고요. 그러다 보니 구청입장에서는 극소수다보니까 한 3~4년 전까지는 단체로 놀러간단던지 이런 행사, 그리고 보조금 같은 집행을 하려면 채권인들 모으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뭘 하던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계신 새터민들을 보면 함경북도 사람들이 많아요. 함경북도 사람들 성격자체가 다혈질이지만 생활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한국 분들이 그 성향을 이해해주면 다가가기 쉬워요. 저도 아직 한국에서 취업한 적은 없어요. 오자마자 대학에서 다문화 전공을 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대학공부를 마치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센터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50세가 지나면 누군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센터 보조금 사업을 6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인거예요. 이 센터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 타오는 데도 제한적인 거예요. 일단 여가부에서 받아오려면 서류 작성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저희가 모두 새터민인 단체다보니 다 미비해서 보조금 신청해도 탈락되고. 그런 게 6년 동안 반복이 되다보니 자본주의를 일단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사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뭘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더라구요. 봉사는 단순한 개인적인 마음이고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벌면 이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바, 복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 복지도 배우면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니깐 돈의 흐름이나 세계경제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요즘은 새터민 분들 만나면 경제에 관해서 말할 거리도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보조금 지원 받으려면 교육을 받으라고만 했는데 이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북한 분들이 여

II. 갈산·삼산권

기 와서 제일 정착을 잘 한다는 게 사실 돈이 많고 잘 쓰는 걸 의미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된다는 이야기꺼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봉제기술교육을 하더라도 기술교육으로만 그치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봉제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북한 분들 중 봉제를 잘하는 3~40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서서, 그렇다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제 사비를 들어서라도 공장을 만들고 운영을 할 텐데 또 문제점이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면 안 받아줘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요즘은 접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사회적 기업 해보려고 영리 법인도 다 만들고 마을 기업도 도전을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 마을 공동체 사업은 4년 정도 저희가 했어요. 하면서 쌓은 경험이 우리가 한국 분들은 내가 이웃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부모 형제 있고 초등학교 동창 그런 게 있으니 풀어나가기가 쉬운데 저희 북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가거든요. 교회 밖인 실생활에 나왔을 때 저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도 보험 회사에 북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북한사람들 데려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침 출근을 늦게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새터민을 보면 일이 너무 많아요. 통일 안보 강사, 예술단, 여러 일이 있기 때문에 아침 출근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맞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저 새터민들이 왜 다 저러지? 하더라고요. 저희는 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쳤어요.

B

주제가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인데,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면 미투(Me too), 페미니즘이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사실 중국에서 여성에서 살아가기도 간접적으로 들은 것만 있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북한에서 여성으로 사실 태하고 지금 여기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 때에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거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유주영 새터민(가명)

저는 한국하고 북한에서의 차이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차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북한이 오히려 보면 좀 남자들이 권위적인 부분이 있겠네요. 근데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은 중국에서 삶과의 차이예요. 중국에서는 안 좋은 일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북한 분들을 상담을 할 때 그냥 일반 상담이라고 하면 되는데 성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북한 사람들도 그런 경로로 오면서 다양

II. 갈산·삼산권

한 일을 겪으면서 자기만 간직하고 싶은 비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한국 분들은 너희가 중국으로 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다 성폭력에 대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터놓고 이야기해야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 삶도 힘들었지만 한국에서의 삶도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집담회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할 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평에는 사실 북한이탈주민이 100명 내외고 논현동에 2000명 정도로 많은데 부평은 잘 모르겠어요. 부평에서 북한 분들이 어떤 지 잘 모르겠지만 논현동은 너무 다양해요. 사실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중국에서의 성적인 상처를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주제는 부평구문화재단이 부평 전역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함이었습시다. 사실은 이 질문이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질문이었는데,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입장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애 새터민(가명)

북한에서 여성이라고 할 때에는 가정, 살림을 책임지고 가장으로서의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에게는 찬밥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의 비율이 높고 혼인 준비도 여자들이 대부분 준비를 해야 해요. 집 같은 것도요.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요. 한국에서는 아침에 나무 땔 필요도 없고 식사도 북한에 있었을 때보다 간단하게 차려도 되는 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여가부에서 발표한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의하면 북한에서 온 여성들의 가정 등 남성에 의한 폭력피해가 70%에 달합니다. 북한에서도 폭력피해 비율이 높았지만 한국에 와서도 높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현애 새터민(가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북한 남자들 보면 거칠긴 해요. 논현동에서는 남자 분들 술 마시고 싸우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렇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 새터민 부부 중 남편은 저도 북한 사람이지만 제가 봤을 때 저 분이 진짜 북한 남자 맞나 싶을 정도로 거친 성향이 없으셨어요. 폭력피해가 70%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주영 새터민(가명)

그게 남자 분들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의 권위적인 성향이 잠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제 35살인 조카가 30살에 북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권위적인 말투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2~3살 되는 애들도 교육을 명목으로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다가 조카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엄청 꾸짖었어요.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닐뿐더러 아이들을 때린다고 해서 알아들을 것 같지는 않는다고요. 일단 화날 때 때리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은 사이가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분노를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남자들은 거의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남자들 성격이 안 좋아지게 됐는데 여기 와서 가정을 차려도 이질감이 있으니까 붙어살아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이 환경도 다르니까. 저도 한국 사람과 사니까 뭘 모르면 그냥 남편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북한이탈자끼리 얘기해봤자 아무 진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그냥 싸움으로 번지고 그런 식이에요. 또 여기는 밤 문화가 잘 돼있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북한 남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거의 70%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그러면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의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주영 새터민(가명)

자식을 교육한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속상한 마음에도 때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의식중에 때리는 것 같아요.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그러한 행동에 동의하시나요?

유주영 새터민(가명)

전혀요.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는 아이들한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이에게도 선택권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엄마 입장에서 내 말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물론 가정 내에서는 안하겠지만 주변의 이웃들에 의해서, 양육함에 있어 진짜 이걸 매로 교육해야 된다는 것에 김현애 선생님은 동의하시나요?

김현애 새터민(가명)

그게 사회적으로도 한 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저 또한 아이를 키울 때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적절하게 가벼운 매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가 바르게 클 수 있는지 판단이 서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판단이 들면 적절한 훈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도 예쁜 자식일수록 매로 키워야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북한 사회에서는 세뇌교육을 받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교육 받는 게 충성과 같은 세뇌교육이기 때문에 내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마비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보니까 감정에 못 이겨서 주먹이 나간다가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D

새터민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분들도 때리면 안 되는데 손이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II. 갈산·삼산권

건 특수한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제와 연관된 질문을 드리자면 여성으로 살아가기라고 했으니까 두 여성분은 굉장히 정착을 잘 해서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남성분들에 비해 여성분들이 배우자를 만나서 정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혼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에 정착을 수월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이러한 점과 북한이탈여성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돌보는 역할을 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남성이 간암에 걸렸음에도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례와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도 남성은 사회활동을 하니까 집에서의 살림에 대해서 조금 덜 신경 써도 괜찮다고 말씀해주셔서요.

김현애 새터민(가명)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건이 된다면 사회 속에서의 자기가치를 찾고 싶고요. 지금은 물론 아이한테 묶여있어서 공부밖에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나아지는 시점을 기대하고 그 시점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우자가 능력이 돼서 월급을 이만큼 갖다 줘도 크게 만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제든지 제가 여건이 된다면 저도 제 가치를 찾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B

저는 정말 새로운 국면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새터민들은 어떻게 사나, 그거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여성 회관에서도 지난달에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힘들게 사는 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C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워왔던 북한의 생활하고 요즘 미디어를 통해 비춰지는 북한의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핸드폰도 다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북한 체제와 실제 북한 체제 사이의 괴리가 있을까요?

유주영 새터민(가명)

저희도 북한을 나온 지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 상황밖에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에 산지 오래되어

II. 갈산·삼산권

서 우리를 보고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저희도 혼란스럽거든요. 매일 아침 눈 뜨면 한국 뉴스 접하고 뉴스를 통해서 북한 소식을 알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딱지는 여전하더라고요. 여기서 인천에서 경상도 사람이 정착하는 것처럼 함경북도 사람이 인천에 정착했다, 이런 인식이면 좋을 텐데. 지금 넘어오는 북한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시장개방을 많이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휴대폰 다 사용하고 문자메시지, 영상통화도 가능하고요.

진행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분명히 북한이 개방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보도자료 나온 것처럼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일면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진정성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가슴에 따뜻함, 그런 진정성을 갖고 그곳에 씨를 뿌려서 나무가 생기면 지나가는 새도 가슴으로 날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단체를 이끌어 가는 진정성을 갖고 뜨거움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소통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께서도 한국 정착을 감사할 만큼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부평으로 여성으로 살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우뚝 서는 여성으로 살아가길 지원하겠습니다.

※ 새터민의 이름을 가명으로 기입, 일부 발언자의 성명을 알파벳으로 표기



Chapter III

2018 평등한 젠더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부평권

1. 부평권 집담회 요약
2. 녹취 내용

III. 부평 권

1. 부평권 집담회

1) 개요

- 주제 : 더불어 함께하는 여성들의 마을살이
- 일시 : 2018년 7월 24일(화) 16:00-18:00
- 장소 : 부평공예마을(경인로 787)
- 진행 : 김광자 부평공예마을 대표
- 내용
 - 경력단절여성의 재진입 분야인 마을살이(사회적 경제분야)
 - 우정과 환대, 다름이 공존하는 마을살이의 기쁨
 - 혼란과 갈등, 마을살이의 어려움

2) 요약

○ 부평 마을기업

- 부평구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12개 기업 중 여성이 대표자인 경우는 10개로 5/6의 비율로 여성비율이 월등함. 이는 부평구가 전 구청장의 비전에 따라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인천여성가족재단과 같은 기관이 부평구청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성들이 재교육, 재취업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짐.
- 자원봉사활동 등 마을에서 공동체 기반 활동을 염두하고 있거나, 사회적 가치 실현, 나눔의 실천 등 선의의 마음에서 경제적 바탕 없이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고민하던 차에 마을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어 마을기업이 된 사례가 많았음.
- 사업을 시작하는 취지가 이익과 매출을 기본으로 하는 영리적인 부분 외에 공동체 의식과 나눔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가치지향점이 맞아 마을기업을 시작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 하지만 사업 경험이 없거나, 가정 돌봄, 자본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여성들이 지원금을 토대로 기반을 닦아나가는 일은 반복적으로 어려움. 몇 년간 보릿고개를 넘겨 버텨낸 여성 선배기업 대표에게는 노력의 보상으로 대외적인 일거리와 기회가 추가적으로 주어지지만, 예비 마을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비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선배기업들도 예비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선함적 사례를 토대로 한 상부상조하는 신뢰와 협동 네트워크 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지만, 버티다 보면 답이 나온다는 단편적인 조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부평의 경우 문화분야 사업을 진행하는 마을기업 대표 간의 유대감이 높아 서로 지원하며 돕고, 함께 일을 도모함에 적극적이어서 마을단위 주민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지역내외 마을기업 간의 관계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보여짐.
- 또한 마을기업들은 사기업과는 달리 직원들 간의 친목이 좋은 점을 강조함.

○ 마을살이의 어려움

- 대부분 40대 이상 연령대의 대표들이 영리와 가치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구조를 실험적으로 만들어내야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매출을 내기 위해 도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중간 지원조직의 경우, 마을기업을 모아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마을기업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보다는 동원되는 느낌을 받기도 함. 특히 행정업무, 서류 작성 역량이 부족한 예비 마을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조직과의 관계에서 도움보다는 제 3자에 의해 간섭받는 느낌이 들기도 함. 마을기업 운영 주체들이 스스로 의견을 모으고 제도적으로 보완될 점을 요구할 수 있는 모임과 자리가 필요함.
-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라 소외되는 느낌을 받거나 의욕이 저하되기도 함. 마을기업의 사업과 가치를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대표가 여럿일 경우 의견 결정이 힘들어 늦더라도 함께 목표하는 지점을 정해야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음.

2. 녹취 내용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전 대표

반갑습니다. 재단에서 2년 전부터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여러 가지 토론토 하고 세미나도 하고 준비해 오고 있던 터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역 분들과 함께 마련하게 됐어요. 올해 주제는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예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 여성 관점에서 어떡하면 조금 더 살맛날 수 있을 환경이 될 수 있을까? 편안하게 의견을 주시면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김광자 부평공예마을 대표

말씀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마을 기업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남성분들도 여성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남성분들이 안 듣게 되면 결국 여성 안에서 도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모이면 항상 회의 아니면 정책 토론회, 마을 기업의 방향에 대해서라던 지 이런 것들 위주의 이야기만 하지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손맛에서는 왜 어머니가, 혹은 여성으로서 지금 마을기업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커피홀릭이 이 힘든 길을 여성으로서 왜 택하게 되었는지, 마을기업은 공동체의 가치를 따지긴 하지만 상생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같이 발전할 수 있는데 솔직히 4년차인 저도 각각의 개인 분들의 정확한 생각이나 가치관 등에 대해서 얘기해보진 못했어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상생을 할 수 있거든요.

문화다양성이라는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 문화다양성이 대체 뭡까요? 흥대문화하면 젊음이 생각나잖아요. 혹시 최민수 하면 떠올리시는 게 있나요? 가족? 오토바이? 그러면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그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들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마을 기업하면 우리들만 통하는 소통의 언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곤 하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감을 하지는 못해요. 이것은 우리들 끼리의 문화인거예요.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면 인종의 다양성을 떠올리곤 하지만, 문화다양성 중에 상생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들과 함께 우리 마을 기업의 문화를 여성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마을기업을 왜 시작했는지, 시작 안하신 분은 나는 여성으로서 왜 이 자리에 와있는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현재의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

다. 또한 남성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고 있는,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평화렛츠 김영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인천평화렛츠 운영팀장

제가 처음 마을기업에 들어오면서 겪은 얘기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키우고 가정에서 살림만 하다가 인천의료사협에서 소모임 겸 운동하는 활동을 하던 중 지역화페를 만들어보자는 계기가 있어서 모임 내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기업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지역화페를 접목해서 좀 더 키워보자, 단체 내에 있던 것을 마을로 확대해서 얘기해보자고 했고 거기에 내가 실무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역할이 확실했습니다. 공간을 관리하고, 오시는 분들께 지역화페를 알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마을 안에, 지역 속에 들어가기 위해 돈과 지역주민이 필요해지면서 실무자인 내가 직접 사업을 꾸리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지역화페 활동을 통해서는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없었어요. 이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를 해주면 좋지만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소모임을 운영하려면 내가 배워서 사람들을 함께 움직이는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재능은 없는데 사업을 한다고 공간을 이끌어가려니 힘이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천연비누 만들기과 같은 활동을 했지만, 공간에 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건, 좀 다른 것이었죠. 그러다보니 어느새 힘에 부쳤어요.

첫 해 시작할 때는 2년 정도 지원금이 있어서 건강관련 일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중단되고 난 이후에 스스로 살아남으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외부, 내부에 있는 분들의 도움과 후원금을 받아서 꾸려 가는 중 모르는 분들에 의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을기업 그만두지, 왜 세금낭비를 하느냐 하는 얘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걸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더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내 자리가 아닌가보다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을 빼면 인천평화렛츠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걸 못 견뎌서 처음에는 공간 내부 활동만 했었는데, 이제는 외부로 나오기 시작한 게 3년 정도 되네요.

사실 외부로 나오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와서 돈을 벌고 공간을 운영해서 몸은 힘들지만 후원받아 활동하는 때보다는 자유로웠습니다. 리폼맘스, 부평공예마을, 비즈스토리보다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늘고 길게 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중입니다. 또 과정이 힘들었지만, 저는 외부 지원 없이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과

정을 거치면서 제일 힘이 됐던 분들이 마을기업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여기 공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가진 재능이나 솜씨는 누가 쉽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지만 운영하면서 조금씩 배우고 공간을 겨우 이끌어 가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내가 저것도 배워서 우리 공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생각합니다. 지금 7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3-4년 전에는 그때 나름대로 생각하며 움직였겠지만, 그 당시에는 자괴감에 빠져있었어요. 이분들과 활동하며 도움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규모로 예산을 굴리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가늘게라도 연결해갈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츰 나와서 만나는 분들이 더 다양해지면서 저분들을 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좀 더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분들과 활동하면서 내가 얻는 게 많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진행 김광자 부평공예마을 대표

또 좋은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비즈스토리의 컬러테라피스트로 활동 중이신 김영애 선생님을 모시고 잠깐 얘길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애 비즈스토리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에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스토리는 처음에 마을기업을 하기 위해 6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표가 30년 동안 비즈를 만든 공예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회원 분들이 많아서 2~3년을 열심히 했었지요. 하지만 공예라는 것이 만들기 어렵고 가격은 비싸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마을기업을 하고 노선변경을 했습니다. 비즈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걸이 팔찌 귀걸이를 하면 돈을 벌지 못해서 교육도 안 나갔습니다. 제가 비즈를 30년 했어도 부평에서 저에게 비즈를 배웠다는 사람이 손에 꼽아요.

그러다 컬러를 가지고 심리체험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24개의 컬러를 가지고 아이들의 성격을 케어하고 얘기해주곤 했고, 마을기업이라는 이유로 부모님들에게는 상담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처음 1-2년은 의욕적으로 일했지만 점점 힘이 떨어지는 것이 마을기업의 특성이더라고요. 그만큼 간신히 연명하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와서 알게 되었지만 부평구의 마을기업 12개

중 여성대표가 10명이라는 점을 봤을 때, 여성분이 마을기업을 시작하기 수월하다고 생각 해볼 수 있더라도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마을기업을 하기 에는 어려운 점도 많더라고요. 저희도 1~3년차에는 의욕적으로 체험학습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4~5년차가 되니 조금씩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5년차에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비즈스토리는 지금도 그렇고 마을기업으로 어렵게 일하고 있지만, 4~5년, 6~7년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여성이 만든 기업끼리 공동체의식을 가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공예 마을, 평화렛츠, 어머니의 손맛 등 모두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마을기업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예비마을기업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우리가 선 배기업으로서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여성의 기업가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체험학습이나 활동을 나가면 단체명이 뭐냐고, 너희 소속기관이 어디야 이런 이야길 합니다. 사회적 기업 다들 알지만, 마을기업이라고 말하면 그게 뭐냐고 묻는 공무원도 많아요. 5년 동안 의욕적으로 마을기업을 운영했지만 점점 소외되어 가는 느낌도 듭니다. 별개로 비즈스토리는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축제, 어린이집도 많이 나가지만, 어린이와 부모들의 심리 상담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을기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더라를 주제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생각보다 부모님 혹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정말 여유가 된다면 아이들이나 엄마들의 스트레스 상담, 이걸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제도적으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김광자 부평공예마을 대표

다음은 부평공예마을의 조진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조진순 부평공예마을 이사

공간을 소개할 수 있게 부평공예마을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많은 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고, 대표님은 손바느질로 시작해서 미싱과 같은 바느질에 관한 모든 걸 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는 공예 강사를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강의가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도와주시고, 주

로 대표님과 저 둘이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시간을 빼서 마을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공간도 그렇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려 하는데 공예품 같은 경우는 가격 책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큼니다. 들인 공만큼 가격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상품으로 나가는 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을 이용하여 미싱으로 수공예품을 만들면 외부행사, 판로 개척이라고 해서 시나 구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걸로 판매와 함께 우리는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김광자 부평공예마을 대표

2018년 마을기업 자료를 봤을 때 부평구가 12개로 가장 많은 마을기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 기업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부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많은 여성 기업이 배출되었는지, 왜 부평에서 여성들이 사는 얘기를 하는지, 왜 마을기업이 많이 있는지 부평구청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슬로건, 전 여성 구청장님, 비전과 목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가족재단이 부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가까이 있는 것은 혜택이고, 지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마을 기업이 많이 배출된 것 같습니다. 리폼맘스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부평에서 여성으로 사는 얘길 들려주시겠습니다.

윤문정 리폼맘스 대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참 좋아요. 어떨 때는 보호도 받고, 불리한 경험도 하지만 그것을 조금씩 이겨내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마을기업에게 2년 정도 정책자금을 주니까 이걸 받을 때까지는 한번 버텨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그 이후에 우수마을기업이라는 입상도 하고 어느 날 파워포인트 만들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남성분이 1년만 하고 문 닫을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성이고 촌스러운 아줌마였던 모습이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한 것은 제 마음속의 자신감을 키운 것도 있습니다. ‘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으로 확산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분들에게 그 고마움을 열심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진행 김광자 부평공예마을 대표

저희가 지금까지 부평에서의 마을 기업 이야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부평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인천에 70개 정도 있지만 다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마을기업을 선택했는지, 버리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지 부평마을기업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의 마을기업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해요. 그래서 내가 왜 끈을 놓지 않고 마을기업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내면 개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수익은 더 많이 내지요. 하지만 마을기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역에 모여서 같이 움직이고 싶는데 금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장을 만들다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는 것에서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것은 없지만 계속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던 거죠. 그 바탕이 없이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마을기업들은 그런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국가지원금을 받고 그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눔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돈을 버셔야 돼요. 그래야 나눔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안에는 경제적 바탕이 되어야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기업 뒤에 있는 기업은 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외에 남는 돈은 기부를 하지요. 그래서 마을기업을 하는 것은 영리, 그리고 가치가 있어서 함께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윤문정 리폼맘스 대표

작은 셀렘이었어요.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데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고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엄청 깨졌어요. 덜컥 사업이 되어서 돈은 벌었으나, 4개월 만에 포기할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생긴 것이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에어컨을 사주고, 보증금이 없다고 하니까 적은 금액이나마 투자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로서 가능성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그 때문에 그 분들께 고마웠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저도 좌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이 동네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줬습니다. 계속 안 될 것이라고 얘길 들었지만 그들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들 뿐 아니라 저를 지지해준 사람들에게도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릿고개를 몇 년, 3-4년 정도를 넘기다보니 넘겨지더라고요.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은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압니다. 동네아줌마에 애 키우던 봉제

기술 좋은 아줌마였지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처럼 평범한 아줌마가 가장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고, 요즘에는 일이 너무 많아 자랑하고 싶습니다.

임경순 어머니의손맛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오늘 와서 너무 놀랐고 좋은걸 봤습니다. 젊은 대표님들이 와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걸 듣고는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저는 사업으로서 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만드는 건 얼마든지 하겠는데, 파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영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요즘 고민입니다.

양혜경 커피홀릭

2018년 마을기업 지정된 커피홀릭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을기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봉사동아리여서 영종도의 어머니의 손맛이 나오시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 핸드드립 케이터링 사업을 하다가 우수동아리 지정과 지원금을 받게 되다보니 동아리 회원들이 마을기업을 해보자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을 높여서 최고의 마을기업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심상훈

마을기업의 우리 대표님을 보좌하고 다니며 느낀 건데 재미있습니다. 보통 회사들과 달리 마을기업 분들은 한 식구처럼 대합니다. 아까 어머니의 손맛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 하나는 약한 것 같은데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듣다보면 저도 모르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가 뭉쳐서 의지되고 하는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부평구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영

저는 마을기업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주제에 꽂혀서 왔습니다. 마을기업에서 살아가며 뭔가를 만들고 하시는 것은 알았지만 직접적인 현실을 듣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같은 여성입장에서,

물론 수익창출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공동체개념 안에서 사회의 전반에 큰 기여는 아니더라도 작은 기여를 이끌어가고, 서로 윈윈하는 부분을 배워가는 자리가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김영미 인천평화렛츠 운영팀장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10여명 정도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현재 렛츠라는 이름하에 움직이는 임원이 5명이 채 안 됩니다. 실무를 보는 나와 대표님 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니며 활동 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뭉쳐질 때가 있는데 봄에 썩떡 할 때, 여름에 미숫가루 할 때, 겨울에 고추장 만들 때, 이때는 부르지 않아도 날만 잡혀있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만들어서 가져가는 재미지요. 렛츠가 평소에는 구성원들에게 해줄 게 없는데, 이런 계절별 특수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회원들을 유지하는 게 목표이고, 렛츠를 활동할 수 있는 분을 모시는 게 목표입니다. 외부에 갔을 때 어머니의 손맛이나 커피홀릭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재밌고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규 어머니의손맛

저는 2013년도부터 800세대가 사는 아파트의 경로당을 운영했습니다. 117명의 회원으로 시작했고 첫째로 생신잔치를 해드리겠다고 해서 마을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돈이 잘 벌려서 매달 70만원씩 투자하여 생신잔치를 해드렸습니다. 운영을 하며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김장을 나누다보니 좋은 일을 하는 대신 회원들에게 수익 창출을 못하고 오히려 자금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생신잔치와 장학금도 줄이고 우선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으로만 시작했는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누룽지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금년에는 질경이를 사업 아이템으로 연구해서 커피나 차도 만들어 판매하고 장아찌도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라서 200평정도 직접 제배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최은미

저희는 열 명으로 시작했고 '따로, 또 같이'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개성이 굉장히 강한편이죠. 연수구 내 여성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열 분이 모여서 뭔가를 해보자해서 방향을 잡은 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유부엌이었습니다. 공유부엌에서는 동아리활동을 하고, 거기에 있는 동아리들이 먹을 수 있

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밥집, 동네밥집을 하자고 결정하여 마을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7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매출이 25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그런데 7명이 일하고 있으니 하루 매출이 60만원은 되어야 최저시급을 맞출 수 있는데, 그 정도에 제가 일하는 노동의 대가를 받아가는 사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많다보니까 사업의 의견 결정이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모여 사업을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한 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저 혼자 결정짓는 게 아니고 늦게 가더라도 따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바라보는 지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5년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병아리이기 때문에 소심하기도, 걱정도 많이 되지만 오늘 여기 오니까 왠지 모를 힘 같은 게 느껴지고 든든한 것 같습니다.

권인순 우리마을쉼터 이사

저는 계양구에서 온 우리마을쉼터의 권인순 이사입니다. 그동안 바빠서 마을기업 분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수마을 행사장에서 여기 대표님과 만나 마을기업에 대해 서로 얘길 나눌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선배들에게 행사에 관한 거라든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행사를 자주 나가는 건 아니지만 성과 없이 돌아오고, 경비만 빼고 오는데 왜 이 행사에 열심히 오는지 질문해보고 싶었습니다. 새로 하시는 분들의 얘길 들으니 고민은 다 똑같은 건가보다 싶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여기 선생님들, 선배님들에게 행사장에서의 수익창출이 어떻게 되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2차 년도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직접적으로 이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모든 행사장을 쫓아가야 2차 년도 예산을 받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2차 년도가 되어서 기분이 좋긴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또한 서류 작업 시에 지원기관과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기관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가를 보기보다는 자기들 예산 받아서 행사하기에 더 바쁜 것 같아서 우리와 같이 운영하는 주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마을기업을 하는 사람들, 지원기관이 빠진 마을기업의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김영애 비즈스토리

저희 비즈스토리는 나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모토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반기업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마을기업이 되

었나요?” 우리 마을기업은 처음에 봉사단체로 시작했습니다. 일반 기업은 이익을 분배해서 매출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마을기업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눔도 함께하는 것으로 마을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출이 없고, 행사 쫓아가는데 왜 해야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알려드리지 않은 우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배기업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적 해주어야 하는데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5년차가 되다보니 느끼는 것이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서로의 아픈 것, 힘든 것을 보듬고 가지 않으면 마을기업은 정말 5년 넘기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생기는 마을기업들 앞에서 우리도 어려웠어, 힘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기가 꺾이고 더욱 힘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말은 생략했습니다. 함께하고 나누고, 사회 환원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을기업인 것 같습니다.

진행 김광자 부평공예마을 대표

저희가 일상과 힘든 점을 나눠보는 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서로 알 수 있는 시간을 뒤이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덩고 힘든 길이었지만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마을기업에 대해서, 가치가 있어서 같이 가는구나, 이런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 박수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Chapter IV

2018 평등한 젠더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산곡권

1. 산곡권 집담회
2. 녹취 내용

IV. 산곡권

1. 산곡권 집담회

1) 개요

- 주제 :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과 일자리
- 일시 : 2018년 7월 26일(목) 19:00-20:30
- 장소 : 피골문화회관(산곡동 58-3)
- 진행 : 이용우 우리동네 희망마을 사무국장
- 내용
 - 유리천장에 갇힌 여성노동자, 82년생 김지영
 - 경력단절 이후 갈 곳 없는 여성

2) 요약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어려움과 실태

- 주부대상의 직장 중 일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횡령이 존재함. 위법적인 정황을 알게 되더라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경우가 더러 있음.
- 재취업을 위해 교육을 이수해도 취업과 연결이 잘 되지 않음.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재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교육 이후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지 않음. 하지만 취업요건으로는 경력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임.
- 아르바이트를 알아봐도 경력보다는 나이에서 문제가 됨. 실제 나이 50살에 재취업 가능한 곳이 거의 없다고 함. 반복된 취업실패는 자괴감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50대에 취업을 꿈꾸지만 선택 가능한 곳이 적어 대부분 장애활동 지원사, 방문판

IV. 산곡권

매, 보험 등 남들이 꺼리는 한정된 일자리를 찾게 됨.

- 부업을 하는 경우, 보상이 너무 적고, 가정생활과 일이 엉켜져 가족을 돌보는 주부로서의 생활패턴을 유지하기 어려움.

○ 육아휴직의 현실

- 40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경험할 당시에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았고, 육아휴직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아이가 크는 최소 5~6년간 쉬다보니 경력단절이 됨. 쉬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치고 올라와서 복귀가 힘들어짐.
- 전문직이 아닐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능한 편임. 대체 가능한 업무일 경우 회사는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경향이 있음. 육아휴직계와 사직서를 같이 올려야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존재함.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 육아휴직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음.
-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직장도 주변의 눈치로 인해 복직이 힘든 경우가 있음. 1~2년의 휴직으로는 육아기간이 매우 부족하여 부모 중 한 사람만 돌봄이 가능한 경우, 복귀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음.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제안

- 동네 소상공인, NGO 등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직원 월급을 일부 지원하여 여성들이 동네와 단체에서 경력을 쌓는 기회, 소상공인과 단체 입장에서는 인력을 수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받길 원함.
- 남성육아휴직 장려, 유연근무제 전폭 실시, 육아분담의 인식이 이루어져야 함.
- 육아휴식 후 복직의 사례가 많아져서 다른 여성도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함.
- 여성 노동권·경제참여권 보장을 위한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 슈퍼우먼 방지 조례 등을 통한 일·생활 균형이 필요함.
-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고 주부(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고용정책이 많이 부족함. 여성가장 채용장려금, 장애인 채용장려금, 청년취업의 문제로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대상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임.

2. 녹취 내용

진행 이용우 우리동네 희망마을 사무국장

오늘 모인 취지는 평등한 시리즈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소수자들을 향한 시선을 바꾸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드라마 속에서 중요한 역할이나 리드하는 역할은 남성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이지만 미디어에서 비취지는 여자들은 역할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질 못했어요. 능력 있는 여성들은 많은데 아이를 키우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 서질 못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주제가 경력단절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경력 단절이 됐을까요? 취업 얘기를 하려면 저기가 시작일 것 같아요. 우리가 경력 단절된 이유가 뭘까요? 임신, 결혼, 출산, 육아.. 옛날에는 결혼만 하면 세상이 다 남편이 먹여 살리는 줄 알았고, 결혼하면 취업은 절대 안한다는 전제를 달기도 했는데 막상 살아보면 취업을 꿈꾸게 되죠. 언제 꿈꾸게 될까요?

(애들이 어느 정도 컸다고 할 때 쯤, 어린이집 갔을 때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손이 많이 가요.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5시까지인데 학교에 들어가면 12시만 되면 애가 나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단계가 조금 지난 후, 취업을 꿈꿨을 때가 3~4학년, 늦으면 5~6학년. 자기 혼자 학원 다니고 밥을 해결하게 될 때쯤 취업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처음 접할 수 있었던 일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김지혜 선생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김지혜 부평녹색연합 감사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가장으로서 학업을 병행하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연히 매장에 들어가게 되어서 차근차근 밟아오다 보니 매장관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점점 커지다보니 아디다스와 리복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해 성장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부평

IV. 산곡권

구 매장을 관리하게 되고, 쌓아온 스펙이나 기간이 어우러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도 회사에서 사정을 많이 봐줬고, 나와 같은 직장의 회사상사였던 신랑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많이 키워주셔서 다행히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육아휴직중인데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 마지막 기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년생 둘째가 있어서 내년까지 쉴 예정입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않았던 육아가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당황스럽고, 그런데 복직에 대해서도 저는 돈을 많이 벌어들였지만, 돈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놓고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혜택 같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제가 처음이라 복직이 뚜렷하지 않고 불안합니다. 제가 무조건 복직하겠다고 하면 법률로 인해 노동권을 보장받는걸 알고 있지만, 현실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친정엄마가 안 계시고 하니 복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나라에서는 15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 수령액은 75만원 정도입니다. 세금 빠지고 뭐 빠지고, 복귀 후 몇 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이므로 복직하지 않으면 일부분밖에 받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불안하다고 표현하는데 왜 그런 표현을 하셨나요?)

우리 회사는 매장 관리를 하는데 최소한의 인력으로 매장을 운영합니다. 저는 직원과 매장 관리를 하는데 제가 빠져나온 후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우게 돼요.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이 오고 승급해야 되는 동생들을 위해 제가 자릴 피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2년 공백이 어렵지 않나요?)

유통구조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판매직을 할 때에는 그 시선이 안 좋았는데 그걸 딛고 배워가면서 버텼어요. 지금은 일을 골라서 갈 수 있고, 다른 회사로도 갈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한길만 땀거든요.

진행 이용우 우리동네 희망마을 사무국장

여기는 현실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육아휴직을 했지만 불안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취업을 꿈꿀 때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나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박순정

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려야 하고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한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김지혜 부평녹색연합 감사

막연함도 있고 마땅한 정보처가 없는 것도 있어요. 돈을 벌어야겠다, 일은 하고 싶는데 사무직을 하려면 나이가 너무 많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김국주

시간도 안 돼요. 회사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나이에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생산직인데, 야간 2교대 같은데도 있고요. 돈 많이 벌지 않고 조금만 하고 싶는데 그런데는 사람을 안 뽑아요. 몸은 안 따라줘서 12시간은 힘들어요.

문혜미

저도 유치원 하원시간에 끝날 수 있는 일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주부대상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곳 중 일부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안 쓰고, 여자들을 만만하게 보고서 월급을 빼돌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제가 고르기도 힘들고, 골라 봐도, 결국은, 돈을 못 받고 당하고 있으니 법률적 대안조차 없더라고요.

한소희(가명)

저는 9시부터 4시까지 일하고 싶은데, 이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위법에 대해서 신고를 해도 찍히니까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진행 이용우 우리동네 희망마을 사무국장

그럼 시간에 구애를 덜 받는 부업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나장래(가명)

부업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눈뜨자마자 시작해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돼요. 그리고 만약 자다가 일찍 눈이 떠지면 온종일 그것만 붙잡고 있게 됩니다. 몸이 상해서 아프고 남편이랑 싸우기도 하고, 급여도 안 좋고, 살림까지 하면 애들을 못 챙겨서 애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취미활동은 고사하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요. 오로지 부업에만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김지혜 부평녹색연합 감사

옷 개는 일을 친구가 한 적이 있어요. 홈쇼핑에 오픈하게 되면 오픈매장에서 일반 물건이 박스로 천 박스 이상이 들어와요. 하룻밤에 모든 직원들이 비닐을 떼고 옷걸이에 걸어야 합니다. 옷을 포장하는 부업이 있었는데 친구가 말하길 한 개 옷을 개는데 5원이라고 했습니다. 10개 개도 50원, 100개 개도 500원이에요.

진행 이용우 우리동네 희망마을 사무국장

정리해보면 부업의 장점은 시간의 구애가 없는 것, 단점은 몸 아파, 남편과 사이 나빠져, 대인관계 안 되고 돈은 얼마 없고 그래서 이쪽 분들은 부업을 다 정리하게 되셨군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취업 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문혜미

주부 꿀 알바 쳐보니까 나오는데 텔레마케터가 있었어요. 아기엄마들 4명이 가서 애길 들으니 편해 보였죠. 그런데 가만히 고시원 같은 곳에 앉아서 전화기만 들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다가 4 시간동안 한 사람과 통화하는 거예요. 실적이 안 나오면 나중에 자르고, 같이 시작했던 아기엄마들이 몇 개월 못하고 먼저 다 그만뒀어요.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요.

김아랑(가명)

제 친구는 전집 책 파는 일을 하는데 친구들에게 전할 돌리더라고요. 결국엔 할당량을 못 채워서 그

IV. 산곡권

만두게 됐어요.

문혜미

방판, 보험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다단계죠. 내가 가진 관계망을 다 우려먹으면 할 게 없습니다. 1년 내에 승부가 나고 나머지는 영업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 같아요.

진행 이용우 우리동네 희망마을 사무국장

부업, 방판, 텔레, 보험. 그 다음 단계고, 이도 저도 아니다하면 사무실을 꿈꾸긴 하지만 사무실은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고, 30대 미만 풋풋한 여성에게만 열려있다는 것이죠.

이연경

여자들의 재취업이 문제예요. 정보가 없기도 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과 연결이 안 됩니다. 어떤 엄마는 미용만 몇 년째 하고 자격증만 따요. 돈이 많이 안 들어도 재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교육만 받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혜미

저도 많이 봤어요. 회계교육을 시켜준다고 가서 해보면 기초교육을 시켜줍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기초로 따라갈 수 없는 회계를 시키는데 말이죠. 다 해줘도 초보를 안 뽑아서 우리는 갈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력은 어딜 가서 쌓어나갈지 고민입니다. 열의가 강한 친구들은 바로 접고 도배로 갑니다. 도배학원을 가서 열심히 하지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도 봉사하는데, 경력을 안 쌓으면 보조가 된다고 합니다. 보조생활을 좀 오래해야지만 인정을 해주는데, 그 기간을 버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용분야로 또한 많이 갑니다. 초짜는 동네미용실에서도 머리 감겨주고 이런 걸 하지만 기술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차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연경

나이 어린 엄마나 외모가 수려한 엄마들은 금방 뽐힙니다. 의욕이 있으면 밑에서부터 시작 하지만 직장 입장에서 나이 많은 직원을 부리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보다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취업으로 가는 경우들이 없어서 손쉽게 하는 일들만 찾게 되고요.

문혜미

재취업교육 얘기 하니까 인천가족재단 구청 앞에 있는 기관에서 어린이영어지도사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 끝나면 끝이니 바로 무조건 취업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 저는 다행히 취업이 되었어요. 보통 내 나이대의 주부들이 일을 했는데 사장이 유치원으로 가는 월급을 다 빼돌렸습니다. 위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닐 거면 모른 채 해야 됐고, 선생님들한테는 교재를 대주는 사람의 몫을 제외한 절반만 지급한다고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준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다르니 유치원에 나오는 사람들은 난감하게 되는 거죠. 주부대상으로 하는 일들이다 보니 보호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푼 받는다고 나서느냐, 그냥 참고 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요.

강정순

저 같은 경우는 일하고 싶으니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도 손해 보는 걸 감수하고 가요.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참게 되니 사업주들은 당연히 여기게 되는 것 같고요. 근로조건에 대해 아무 얘기도 안하고, 10만원 받는 줄 알고 갔더니 7만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퍼져있어요.

한 예로 유명한 체인점 순대를 만드는 공장에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계약서를 1장 썼다고 해요. 계약서를 봤는데 157만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퇴직임금을 받았냐가 중요한 것 이었는데 퇴직임금도 못 받고 연차수당도 못 받은 것이죠. 첫째는 잘 알아야 되고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행 이용우 우리동네 희망마을 사무국장

정리하자면 회계는 우릴 뽑아주는 데가 없고, 도배나 미용, 바리스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교육받을 수는 있으나 취직할 곳, 경력 쌓을 곳이 아무데도 없고, 초보자를 뽑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같은 곳은 바리스타 교실을 하면서 여기서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해요. 왜냐면 마을기업이라 주목적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한 게 내가 경력, 자격증을 딴 상태인데 사장이 나를 쓰면 손해라고 한다면, 50%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면 자격증을 이수한 사람을 쓰되 50%라도 돈을 지불하면 나는 경력이라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네 소상공인 사람들이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100%로 돈을 다 주고 쓰긴 어렵지만, 반값이면 수월할 법도 같아요.

(현실적으로 되면 참 좋은데 서비스업이면 초보자를 쓸 경우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

서로 노력하는 것이죠. 사장님도 노력하고 취업자도 노력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 경력단절여성의 구직 등 문제를 이런 제도를 통해 같이 도와주고 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동네야 놀자는 사람이 없고 일도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는데, NGO에서도 친구들에게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 홀몸봉사, 녹색봉사 하는 분들도 봉사활동이 경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취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화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줄 수 있지만, 40대 후반에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뭘 배우면 뒤에서 양성해주고 해야 하는데 수료증도 돈 내고 취득해야 되고 일 년 더 공부한들 그럼 나이가 50입니다. 그럴 바에 젊은 애를 쓰지요. 남은 건 식당뿐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순복

저도 여기 심포라는 곳에서 바리스타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2층에서 강의도하고 있지만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매니저를 모집하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경력은 5-6년이 되고, 1급

IV. 산곡권

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48세라서 바로 아웃이 되더라고요.

강경화

모집공고를 보면 대졸, 자격증1급을 딴 사람만 지원해야 되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걸 관리 받지 못 해요. 집에서 뭘 하려고 하면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우라고 합니다. 안 쓰는 게 돈 버는 거라고 움직이지 말라고도 하죠.

진행 이용우 우리동네 희망마을 사무국장

경력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제공해줬으면 한다는 것 외에 또 꿈꿔본 제안이 있을까요? 이런 게 있으면 취업이 더 잘 되겠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세요.

강경화

바리스타 애길 하셨는데 노인 직업 창출할 때 나라나 자선단체에서 실버카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주부들을 위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구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사업하는데 내가 개인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능력 있는 주부들이 모여서 하려고 할 때 나라가 지원해주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게 잘되면, 다른 데에도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고요. 물론 취업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일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나이트 남성들도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하고 그걸 도와주는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게 꼭 남성들만 하기 보다는 여성들에게도 사업할 때 아이디어나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노년층에도 포함되지 않고, 장애인, 편부모, 등등 지원을 해주는 취약계층, 이런 기준에 아무것도 속해있질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정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김지혜 부평녹색연합 감사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새로운 직원을 뽑았을 때 나라에서 최대 1년 동안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있어요. 일단 청년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재래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면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봐서 엄마들을 위해, 여성들을 위해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정책이 있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명숙

채용장려금 중 사업주를 위한 장려금이 많은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제도가 많아도 여성가장 채용장려금, 장애인 채용장려금, 그리고 청년취업이 문제가 되니까 우선적인 것 같아요. 우리 나이대의 취업을 꿈꾸는 이들은 갈 데가 없으니 요양보호사 같은 자격증을 따서, 장애활동지원사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력단절이 실제로는 일을 하다가 결혼이나 임신 육아 중 등의 이유로 직장에서 경력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경력단절이라고 합니다. 실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연경

여러 이유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공백기가 없이 일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웠지만 애가 어린 여성, 젊은 여성, 이런 친구들에게 제도가 있으면 연결해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까지 안 오게 지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문혜미

지금 일을 다시 구하다보니 초보가 된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경력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판 모르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 자괴감이 들어요. 만약 일을 그만두지 않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나 3년 동안 애를 키우고 와도 돌아와서 괜찮다면 돌아갔을 것 같아요.

진행 이용우 우리동네 희망마을 사무국장

그럼 결혼 전엔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신건가요? (네)

그럼 일을 그만둔 게 결혼하고 일을 그만둔 건가요? (네)

만약 일자리의 승진기회가 많고 급여가 많았다면 그만뒀을까요?

이명숙

안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일하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시급하다고 느꼈어요. 우리 때에는 어린 이집이 흔하지 않았고, 지원도 안됐어요.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그 당시 저는 급여가 30만원이었는데 애 둘 맡기는데 56만원을 줬어야 했습니다. 그 조건을 감수하고 경력이 만들어졌죠. 요즘 세대 애들에 물어보니, 지금과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학대사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린이집이 무섭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애를 키울까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안전하게 봐줄 수 있다는 게 보장되어야 하고, 근무시간 단축이 되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현숙

결혼해서 애를 처음 낳았을 때, 어린이집은 없고 대개 유치원이나 학원이었어요. 최소연령이 4살이었고, 그때는 육아휴직이 없었으니 최소 5-6년을 쉬어야 한다는 얘기였는데, 경력단절이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검사원이었고 비록 제가 원해서 그만두긴 했지만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릴 치고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였죠. 그러다 애들이 초, 중,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동안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없어지고,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고, 나이는 먹고, 부업하다 주저앉고, 전업주부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명숙

만약 취업을 해도 걱정이예요. 실제 제 동생의 직장도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애를 낳은 후 출근이 늦고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애를 보내고 와야 되니까 탄력근무제 시행으로 4시 반에 퇴근을 하고 있어요. 급여차이는 많이 나도 하나를 보면 만족할 것 같지만 주위의 눈치가 너무 보입니다. 다들 바쁜 데 집에 가야되고, 집안 행사는 많고, 녹색도 서고 청소도 하고 그러다보면 눈치를 보게 되고 은연중에 밀어내는 것이죠. 육아휴직을 써봐야 1-2년인데, 그걸 뺄뺄하게 다 쓰고 다시 돌아가도 아이는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이것저것을 따지다보면 못 가게 되더라고요.

박현숙

경력 단절이 맞긴 하지만 사실 아이 키우는 중요한 일을 우리가 다 했는데 그걸 경력으로 쳐주질 않으니깐요.

이연경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 중 근무시간 감소도 있는데 남편들도 근무시간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독박육아 하지 않았나요? 독박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남편들도 일을 줄이게 해줘서 육아분담 해야 된다고 봐요. 눈치도 보이고 복직도 불안하지만 육아휴직 처음 쓰신 입장에서 복귀했을 때, 다른 여성들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잘 쓰셨으니 어떻게든 복귀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지혜 부평녹색연합 감사

저희 매장 직원들 같은 경우에 시집을 가고 임신하면 다 그만두더라고요.

IV. 산곡권

이연경

대구 금복주, 소주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긴 결혼하면 무조건 퇴사해야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지혜 부평녹색연합 감사

우리는 누가 밀어내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도 노동법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요. 출산휴가도 애를 낳고 45일이 보장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친구들이 버티질 않아요.

이명숙

저도 임신했을 때 그만뒀습니다. 눈치를 너무 주더라고요. 네 명이 있는데 2명이 임신했더니 눈치를 보게 합니다. 왜 눈치를 봐야하나 모르겠어요.

김국주

복귀가 제대로 되어도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해야 하는 직업군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교직원 등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김지혜 부평녹색연합 감사

공공부문도 복지가 낫긴 해도 그들만의 사정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는 경찰공무원인데 육아휴직을 못했어요. 공무원이라고 다 똑같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진행 이용우 우리동네 희망마을 사무국장

저희가 노동 상담도 하는데 성차별, 성희롱,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눈치보고, 압력주

IV. 산곡권

고, 돌아갔는데 부당행위를 받는 것 등 그거 다 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알긴 아는데 그게 회사를 그만두는 걸 감수하고 해야 하지 않나요? 작은 회사일수록 관계가 다 망가져서 돌아갈 수 없게 돼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달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제일 걱정되는 건, 다음 세대들이예요. 우리 밑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단절의 과정을 걷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 전에 알바를 했는데 그만뒀어요. 그만두는 이유는 애들이 방학해서였어요. 역으로 애들이 학교간 사이에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애들 방학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됐어요. 방학이 있는 직장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김국주

학교 돌봄 교실은 방학동안 도시락을 먹여야 합니다. 일하는 엄마에게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더군다나 여름엔 식중독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돌봄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에도 일자리를 계속 구할 것인가요?)

그렇죠. 전에는 애들이 3시에 오고 2시에 오고 그래서 오전만 시간이 됐는데 지금은 다 20살도 넘었고 우리는 풀타임이 가능해졌지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에서 다 걸리더라고요.

나장래(가명)

알아볼 것 알아보고, 아직도 알바 알아보는데 나이에서 다 걸려요. 집에서 애나 보라는데 놀고 있으면 스스로가 너무 멍청해 보이더라고요. 올해부터 조금이라도 무엇이든 배우고 있긴 하지만 내가 시간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지옥 같습니다. 애는 고등학생이라 밤늦게 오고, 집안일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라 몇 시간이면 끝나고 빈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동안 그런 걸 느껴요. 초등학생 때는 3시에 오면 간식 챙겨주고 학원 보내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나중에 뒤돌아서 돈 벌어야지 하니까 나이는 50살이고 써주는 데가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계속 회사 다닐걸. 지금도 열심히 알아보긴 하는데,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사실 전문적인 일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는 경력 단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전무한 사람들은 경력단절이라기보다 고용 단절인 것 같습니다. 경력은 다시 복원하는 거라고 하면, 결국 여성의 고용단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다시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나 발굴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몇 개월 안 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함경선

실업을 넘나드는 직업교육 관련도 결국 근로 세금을 낸 사람만 해당 됩니다. 우리는 내고 싶어도 못 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혜미

사실 전문직이 아니면 근무하다가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을 후 복직하는 게 안 됩니다. 육아휴직? 인정 안 해줍니다. 권고사직이 안 되고 사직서를 같이 올려야 하는 것이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되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직을 갖지 그랬냐?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문직에 한해서 육아휴직이 있는 것이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 육아휴직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얘기를 듣다보니까 너무 암울하네요. 저도 출산휴가 후에 바로 복귀를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을 다 접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은 뒤 다시 취업을 하자 생각했는데 그 잠깐의 시간동안 안절부절 못했어요. 왜냐면 경력 단절이 될 것 같았어요. 지금도 막닥뜨리고 있는 이 시간에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일을 못하는 것보단 낫고, 알아야지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성희롱 다 알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2-3년차에 70%가 다 그만둡니다. 저기 가서 성희롱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렇기에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운 좋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말을 열심히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 힘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 계속

IV. 산곡권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임도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진행 이용우 우리동네 희망마을 사무국장

이만큼 얘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셨던 부평 구문화재단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집안일을 잠깐 내려놓고 함께 해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일부 발언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표기



Chapter V

2018 평등한 젠더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십정권

1. 십정권 집담회
2. 녹취 내용

V. 십정권

1. 십정권 집담회

1) 개요

- 주제 : 젠더폭력의 불안과 공포에 대처하기
- 일시 : 2018년 8월 10일(금) 19:00-21:00
- 장소 : 인천여성민우회 경인로 787(십정동 572-8)
- 진행 : 문미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 내용
 - 이사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 공유
 - 여성 노숙자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
 - 셰어하우스에서 내 편이 되어줄 친구 구하기

2) 요약

○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집의 요건, 안전, 치안

- 여성에게 집은 안전을 확정지어 주는 공간으로 여성들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집을 구할 시 역세권(교통), 시세와 함께 우선적으로 안전을 고려하게 됨. 이는 남성들 입장에서는 집을 선택하는 요건 중 최우선순위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지역, 비혼 여성, 1인 가구, 20-30대 여성 등 개인마다 느끼는 안전감, 안정·공포 감은 완전히 다름.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20대 여성이 집을 구할 경우, 저렴한 가격과 낙후된 주거지를 고르게 되면서 불안한 주거요건이 갖춰짐.
- 따라서 셰어하우스와 같이 비혈연 집단과 함께 주거하는 대안책을 찾게 되지만, 남남인 관계로 인해 용인되지 않는 사소한 경제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쉽게 와해되기도 함.
-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건설적인 장래를 포장하여 설명해야 하는 면접과정을 거쳐야 하

V. 십정권

고, 신청자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불안정한 기간을 거치면서 당장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음.

- 안전, 불안의 문제는 정신, 신체, 활동영역이 위축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 이슈로 보고 해결해야함.

○ 의식과 제도 변화의 필요성

- 한국 영화에서 나오는 여성캐릭터는 단편적이고, 성매매, 성폭력 피해여성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 영화관람 후 잔상이 남고, 공포감이 생김.
- 성별에 따라 '자취'에 대한 반응이 다름. 남자가 자취할 시 자취공간은 아지트, 즐거운 곳으로 인식되는 반면, 여자의 자취방은 성적으로 희화화되는 경향이 있음.
- 가족의 형태가 결혼 제도와 혈연관계를 통한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주거 취약계층이 있지만 그런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2. 녹취 내용

진행 문미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오늘 평등한 젠더 부평 권역별 집담회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에 참석해주신 자매님들 반갑고 즐겁습니다. 현재 젠더 외에 이주 여성, 여성의 노동, 갱년기 여성, 북한이탈 여성 주민의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권역별 집담회를 하고 있고, 저희는 장애 여성이나 1인가구, 비혼여성, 노인여성 또는 노숙자 여성들의 인권이 문화다양성 안에 담겨야 한다는 취지로 오늘 집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다양성을 생각했을 때 국적, 인종, 세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젠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집담회는 젠더 폭력의 불안과 공포에 대처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여기 민우회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영호, 라온, 나래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영호가 이사 경험을 말씀해주실 건데, 제목을 멋지게 달았어요.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하는 똑똑한 감정'으로 영호가 먼저 들려주시겠습니다.

영호(가명)

제가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발언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이사라는 나의 당연한 경험이 집 단에서 굉장히 풍요롭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개념에서 집값이랑도 관련되어 있지만, 여성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나의 몸에 대해 안전을 확보해 주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집을 구할 때, 집값과 같이 안전도 많이 고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한국 영화를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 영화에서 나오는 여성들의 캐릭터가 너무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성매매 여성 아니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인데, 성매매 여성은 모텔이라는 이름 없는 공간에서 죽어나가고,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안전해야 하는 집으로 들어가는 밤길에서 죽는 거예요. 이러한 영화를 계속 보고 있으면 저 역시 어두운 밤에 집으로 들어설 때 그런 장면들이 오버랩 되어서 공포감을 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더 이상 보지 않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오늘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왜 매번 그런 여성들은 죽는가?’가 떠올랐어요. 왜 여성들은 집이라는 안전한 공간을 향하다가 이름 없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함몰되고 때려 눕혀질까. 사실은 그러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언이나 다양한 표현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적어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낯선 집에 들어선다.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얼추 성별과 나이를 알아챈다. 눈치껏 집의 규모와 상태를 확인한 뒤, 바로 눈이 가는 곳은 창문이다. 창은 몇 개인지, 방범창은 설치되어 있는지, 밤에는 얼마나 어두울지 등등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본능적으로 이 집이 얼마나 안전할지 스스로 점검한다. 화장실에 들어가 수압의 세기를 확인하기 전부터 눈은 화장실 창문을 향한다. 신이 내게 초능력을 준 적은 없지만,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나는 온몸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를 갖고 태어났다. 피곤하다, 부대깁다, 뭐하는 짓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이 모든 미션을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확인할 것들이 남아있다. 이사 갈 집을 계약하고 그날 밤 친구와 그 집을 다시 찾아간다. 그 집과 버스정류장의 거리를 가늠하고, 얼마나 어두울지 확인하고, 가로등의 위치도 확인하면서. 한편으로는 빛 공해 때문에 힘들지만 주변에 늦게까지 영업하는 술집이 있다는 것에 안심한다. 친구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가 났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굳이 이렇게 까지 하면서 집을 이사하는 게 어떤 의미이며 또 여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들을 한국 남성들은 정말 이해하고 공감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저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현재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반사회인권단체에서 10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여성폭력단체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폭력에 관하여 사실 어느 정도 체감된 것, 보여 지는 것들도 많고,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 지에 대해서도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그런 순간이 닥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해야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왜 말 한마디도 못하지? 그런 게 굉장히 화가 나고 힘들어요. 왜냐면 경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나 다른 공간 안에서 누군가 내 몸을 더듬거나 만지려고 했을 때,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계집애가’ 라는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도 아무소리도 못하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그냥 주변을 응시하는 거예요. 사실 제 스스로도 할 수 있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또 위축되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저를 후회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조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했었어요. 제가 작년에 복싱을 1년 정도 배웠어요. 복싱을 1년 배웠다고 해서 힘이 생긴 건 아닌데, 어디 가서 애들한테 얘기해요. 나도 복싱 1년 배웠다고 얘기하면 아, 만만한 여성은 아니구나 라는 것처럼 보여 질 정도로 계속 또 겹겹이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실은 누군가 내 몸에 손대지 않으면 굳이 이런 안전장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스스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딜레마가 쌓이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는 건 이러한 저의 예민함에 대해서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좀 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각자의 솔루션이 있을 것 같아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어요.

여전히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 가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상상의 한 장면에 빠져 주인공이 된 것 마냥 착각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장면들이 수없이 있고 그런 장면들이 피부에 와 닿는다고 봐요. 예전에 강남역 15번 출구 화장실 살인사건 후, 며칠 뒤 공원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문을 못 여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이 나왔지만 문을 열었을 때 누군가 있을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움츠려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몸을 활짝 펴본 경험이 없어 더 움츠려는 것 같아요. 운동이나 다양한 활동으로 몸의 확장성도 갖지만, 마음의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담회에서 경험을 나누는 활동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냐? 괜찮은 걸까?’ 하면서 계속 스스로 묻게 되거든요. 그냥 그 감정 역시 내가 그 순간과 장면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싸워나갈 수 있는 방패막이이자 나를 지키는 저항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행 문미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생기고 경험도 보태고 싶을 텐데 세 분의 발표가 끝나면 이야기를 더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경험이고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젠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 노숙자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 제목으로 라온이 발표해주시겠습니다.

라온(가명)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하게 된 것은 남들이 안 해본 것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권역별 집담회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안전한 공간, 집에 대한 주제라 저희 민우회 활동방향성과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야 할 집이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없다는 상실감이나 난처함, 안전에 대한 불안, 관계의 단절, 몸과 마음이 휴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내 삶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것은 아닌가 이런 피해의식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다가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하며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알아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쪽방, 임시숙박 시설, 비닐하우스, 고시원, 사우나 시설 등 이런 데를 전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노숙인이라고 하는데 ‘노숙인’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거지? 지저분한 사람? 목욕 안한 사람? 무료급식? 등 이런 부정적인 것이 많잖아요. 또 멀쩡한 사람이라 불리는 정상인에게 해코지하는 정신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노숙인에 대한 명칭이 변변한 게 없습니다. 노숙인은 사회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네이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경험에 의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하고, 피해 또는 자기 상황이 강약에 의거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나 〈어느 가족〉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집의 여자 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잖아요. 거기서 머물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결혼 제도 안에 있는 가정이 아닌,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다양한 가족, 관계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로 생활을 하는데 그런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폭언을 일삼아서 집을 나왔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에게 ‘내 처지가 이래’라고 설명하면서 하루밤 묵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남편과 떨어져서 냉전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엔 도움을 요청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 마음의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정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기

V. 십정권

도 했고. 그래서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어떤 상황이나 물어서 답했더니, 그렇게 경미한 사람은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긴급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게 그들의 업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같이 경미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노숙인 쉼터가 있다고 했어요. 노숙인 쉼터에 전화했더니 인천의 계양구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5군데가 있더라고요. 홀리라이프, 다사랑의 집, 은혜의 집, 광명의 집 이런 데가 있지만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제가 계양구를 갔을 때, 고분고분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상담하시는 분이 정보를 제대로 안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딜 가야 되냐 했더니 부평시장에 있는 여인숙 고시원들을 개조해서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노숙인 쉼터이니 거기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오는 길에 뒤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어디 가서 그런 시설을 알아보려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과 행동, 자세는 조심해야지. 어디서 밥 빌어먹고 살 수 있겠어요?’ 라는 누앙스로 충고를 하더라고요. 진짜 자본이 없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 이런 곳에 도움을 받으려 갔던 사람이라면 거기서 좌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노숙인 쉼터에서 며칠 지냈는데, 침낭 하나를 피면 공간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노숙인 쉼터에는 1인실정도 되는 곳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아침밥이랑 김치정도는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어요. 다만 시설은 남녀 구별도 없고 내외국인 구별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새벽 5시면 인력시장에 가느라고 다들 일어나는데 분주한 소리가 나고, 남자들과 공용시설들을 같이 이용해야 해서 불안하지만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5시에 누군가 문손잡이를 막 돌리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어쨌든 이 시설은 인천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개개인의 안전까지 책임져주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출행량을 치듯이 집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었어요.

거기서 노숙인이라는 호칭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 시설은 긴급한 여성들이 오는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외부와 연락을 두절해야 한다며 핸드폰을 압수 하는 거예요. 경찰과 병원에 연락하는 것 외에는 아예 외부와 연락이 안돼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피해에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외부 출입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직장을 가지면 안 되고 휴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출퇴근을 해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다른 기회를 찾아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일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핸드폰 압수, 출입통제 등 규칙을 따라야하는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저의 짧은 노숙인 경험은 그랬어요.

일반 단체들이 교회나 종교 단체나 외부의 후원금, 인력이나 시설 규모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바탕은 되겠지만, 젠더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상담도 해주고 편의 시설을 갖춘 게스트하우스처럼 외출도 자유롭고 직업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성 단체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행 문미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여성 노숙인은 저희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라온의 이야기를 듣고 공원에 가면 노숙인을 눈여겨보거든요. 젊은 20대 여성 노숙인은 일부러 남성 노숙인과 가깝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남성 노숙인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선 남성 노숙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 또 나이가 어린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 이렇게 여성이면서 어떤 조건이 붙을 때 노숙인인 여성에게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없는 존재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거지란 말을 했었잖아요. 거지라는 말을 노숙자라는 이름으로 바꿨던 것도, 정책이 이 집단을 위한 무엇을 만들 때만 노숙자, 노숙인 이라는 말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성 노숙인에 대해 우리가 상상되잖아요. 안전한 공간이 없을뿐더러, 도시 자체가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근로 문제나 자연 재해 혹은 남성으로부터 등등. 우리가 항상 성폭력 피해 여성, 성매매 피해 여성 등 많은 생각을 하는데 노숙인 여성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말씀해주신 라온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발표, 나래님의 쉼어하우스 ‘내 편이 되어줄 친구 구하기’라는 주제입니다.

나래(가명)

저는 쉼어하우스에서 한 5개월 정도 생활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탈가정을 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게 되면서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며 쉼어하우스에 살게 되었어요. 제 얘기도 하겠지만 자립을 생각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했던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보를 위주로 많이 발표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가 나가라고 해서 나갔

V. 십정권

어요. 한국의 어떤 부모들은 타임아웃이나 외출금지 대신 짐 싸서 나가라고 외치죠. 마치 어디서 배워온 것처럼 집집마다 대사가 유사합니다. 나가면 갈 데가 있는 아이에게는 결코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과 나가라고 한다고 진짜로 나가면 더 큰 일을 당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못살 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술하게 들어 오다가 돈도 있고, 짜증나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 애길 하는 건 아동학대예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부모에게 아이가 반항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아빠가 하는 말이 너 외출 금지야 그러거든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때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때리지 않고 화만 냈어요. 확실히 한국 사람들은 폭력에 대해서 둔감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속옷이랑 생리컵, 통장만 챙기고 집을 나갔어요. 12월 밤에 나갔으니 24시 카페나 도서관에 있었는데 너무 추웠어요. 성추행이 심한 찜질방은 무서웠습니다. 24시 카페에 있다가 맨 처음으로 빌라건물주 딸인 아는 언니네에 무보증으로 25만원에 집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방에 누웠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와서 너무 추웠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세탁기를 돌리다가 바퀴벌레 다리를 발견했어요. 그것 때문에 일주일간 무서웠던 기억이 있었고 빨리 그곳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안전에 대해 신경을 안 써도 됐는데 안전, 월세, 각종 공과금, 지출, 노동, 건강, 품위유지비 등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사이가 파탄 났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꾸 얻어먹었는데 그러면서 쪼잔해지는 것 같고, 제가 돈을 더 많이 쓰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제가 쌓아뒀던 취향과 문화자본은 생각도 못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외롭고, 가스비가 아까우니까 전기장판 깔아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외로워서 시계랑 얘기하고 있다가 “아 추워” 라고 얘기했는데 시계가 “죽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미쳐가나?

V. 집정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람과 같이 있어야겠다는 심경이 어서 쉐어하우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쉐어하우스, 주택 시범사업이라 해서 보통 보면 되게 저렴해요. 임대료가 1인실 14만원, 2인실 10만원, 진짜 싸잖아요. 2개월 선납이니까 합하면 28만원이 보증금인거죠.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공무원분들은 여기 들어가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취직을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취직을 하기보다 제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살겠다 라는 식으로 솔직하게 말했더니 역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못가긴 했지만 이런 제도도 있으니 관심 있으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여성아파트〉

이 사진은 직장인 여성 아파트라고 건물이 노후 되어서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여성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위해 35세 무주택 여성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62만원 이하인 자 등의 조건이 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보증금 84만원에 임대료가 10만원대이니 저렴한 거죠. 여기 주소도 다 있으니 관심 있으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은 없어졌고 행복주택으로 NH가 말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LH행복주택〉

이 사진은 대학생들이 갈 수 있는 건데, LH에서 하는 게 많아요. 저희가 집을 구해서 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최대 4천만원 정도까지 대출해줘요. 임대료, 공과금 등 다 합해서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예전에는 원룸만 가능했는데 요즘은 셰어하우스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대학생이 아니다보니 못하게 되었어요.

청년전세임대 말고 다른 게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시면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그냥 이런 오피스텔로 돼있는 셰어하우스, 월 임대료가 25~35만원, 50~70만원 정도가 보증금이에요.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는데 저는 최대한 아끼려고 2인실을 갔어요. 여기는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돼있어요.

원룸에서 혼자 살면 요리도 잘 못해먹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등 여러 생활 가전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생활의 질이 좋아지더라고요. 화장실도 깨끗한 편이고요. 임대료도 그렇게 높지 않고, 여성들만 있어서 두려움이 덜한 편이라고 해서 갔어요. 집에 나와서 싫은 소리도 안 듣고 자유를 만끽해서 좋았어요. 같이 밥도 해먹고 꽃으로 집도 꾸미면서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3개월 정도 되니까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거기 사는 친구들이 청각사, 간호사도 있어서 저랑 생활하는 시간대가 달랐는데, 제가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제게 공과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두 번째는 인하대 학익동 쪽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여기는 10명 넘게 거주했던 것 같아요. 방이 4개~6개 있고 셰어하우스라기 보다 기숙사에 가까웠어요. 공용시설이다 보니 규칙이 있었고 방장이라는 사람이 존재해서 점검도 하고. 그게 저랑 맞지 않다보니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때 다시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혼자 동인천에 자취하고 있어요.

집을 나오니까 제가 보험을 계속 납부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보험은 제가 죽어야 돈을 받으니까 지금은 별로 필요 없겠다싶어서 그냥 해지해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살다보니까 취향도 사라졌어요.

제가 공감했던 영화가 <후궁녀>인데, 젊은 여성 홈리스 영화예요. 애가 집은 없고 친구네 집을 돌아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키랑 담배를 꼭 사요. 마치 제가 돈이 없어도 전 시나 영화를 보고 민우회를 찾아오는 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인데 그게 공감 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나왔을 때 동기언니가 없었으면 어땠을까도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는 많이 몰랐지만 모임 나오는 것, 어디에 속해 있는 것도 살아가는 데에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속한 곳이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이현재 선생님²⁾이 얘기하셨어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연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민우회가 더 많이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도 많이 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많이 위로받고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힘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문미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어할만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래의 얘기를 들어보니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안정적인 공간을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생존일지 같습니다. 나 옛날에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게 지금은 좀 안정적인 것 같아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나래님, 애길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잘 아시지 않나요? 보이스피싱 방식이 계속 진화해서 20-3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딸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신고하면서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니 피해사례, 피해 원인, 피해 분포를 조사하고 발표해냈는데 여성이 동년배 남성대비 10배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경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노출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 교수

라온(가명)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경찰청이나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는 걸 봤어요. 본인 명의의 통장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니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진행 문미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여기서 원인분석을 했는데 조금 불편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원인 분석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싶었던 게, 이삼십 대 여성이 전체피해의 74%가 되고 동년배 남성보다 열 배에 달하는 높은 이유를 그때 여성들이 직장을 다닌다고 전제, 결혼자금을 통해 모아둔 돈이 있다는 전제, 법조인과 경찰이라는 권위에 남성보다 여성들이 위축이 더 잘된다는 분석, 직장경험에 있어서 대개 상급자가 남성인 하급자가 여성인 직장구조에 많이 위치하다 보니 강압적인 자세에 더 쉽게 순응하는 것이 여성피해를 더 늘렸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 분석이 불편하고 언짢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20-30대 여성은 이런 보이스피싱에 노출이 되어야만 하고 피해를 줄일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답답했습니다. 이게 누구나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데 항상 어떠한 맥락에서 이런 걸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다른 일들이 우연히 겹치도록 보이스피싱이 옵니다. 언제나 그런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가 솔직히 겁먹잖아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솔직히 이렇게 된단 말이 예요. 자신만만할 때는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위축되는 태도가 대개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배짱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서로 공유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20-30대 여성들이 원인분석을 통해 대처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젠더 폭력에 대해서 위축될 수많은 없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단단해지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발표하신 세 분의 소감을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질문도 나눠볼까요?

영호(가명)

남성보다 여성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 많았을까 할 때 제 추측으로는 여성들이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라든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범죄대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내가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어디선가 전사됐든 유통되는 과정을 생각했을 때 불안감이 들잖아요. 씻을 때 화장실 문을 안 열어요. 또 드론으로 인한 불법촬영도 많기 때문

에 막상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내용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여성들이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다는 생각이 되고, 그런 경우를 국가에서 경찰과 같은 사람들이 보호해준다는 인식과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피해당하기 쉬울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A

저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전할 받자마자 보이스피싱 느낌이 오는데도 덜덜 떨리더라고요. 제 이름과 인적사항을 갖고 있는 것, 그쪽이 너무 당당한 것이 무서웠습니다. 제 주소로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좀 놀랐던 게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웠다는 사실이 의아했습니다. 저도 처음 몇 분은 못 끊고 듣고 있었어요. 번호를 바꿀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바꾼다고 해도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그대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나래씨 경험을 얘기할 때 공감이 갔던 게 저는 통학하기가 힘들어서 자취를 했던 경험이에요. 그래서 상황은 좀 다르지만 집을 떠난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제가 살던 건물은 위치적으로는 좋은 편이긴 했는데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 창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문을 거의 연 적이 없어요. 내가 항상 사진 찍힐 수 있겠다는 공포감이 있어서 한번은 자다가 꿈을 꿔요. 화장실에는 문이 없어서 거실의 커다란 창문이 유일했는데 밖에 나갈 때도 열지 못했어요. 외국인 친구가 잠깐 같이 산 적이 있는데, 창문을 왜 열지 않는지에 대해 친구는 이해할지 못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갈 때마다 환기를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친구가 문을 여는 상황이 불안하면서도 또 같이 있으니까 관찰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친구가 보통 옷을 편하게 입고 있는데 한 번은 자다가 옷이 위로 올라가있는 거예요. 그걸 아침에 확인하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 여름이라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잤거든요. 그 순간 저는 또 무서웠어요. 문을 열고 옷을 편하게 입고 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집 밖에 나가고 나서부터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더라도 사진 찍힐 수 있다는 공포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데, 그 친구는 그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점이 되게 생소하고 충격적인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호씨 얘기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배달시킬 때도 주소를 안 써요. 건물만 쓰고 물건도 내려가서 받아요. 그리고 제 생활일과가 일정하잖아요.

V. 십정권

학교를 가도 가장 빠른 길로 갈 거고 매일 같은 길을 가니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매일 똑같은 사람들만 보고 있다는 것어요. 그러다 보니 가끔 길을 바꿔서 가기도 해요.

B

이런 것에 대해 사실 너무 정보가 많아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세대 차이인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우리세대와 뭔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불안해하냐? 그런 생각이요. 사실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 여부의 차이일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도 모르게 남편과 가족에게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C

제가 자취의 산 증인이예요. 중학교 3년을 했어요. 제가 느낀 것은 20년이 지난 지금 많이 무서워졌다는 것이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노출이나 도촬 같은 문제를 생각하며 떨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연탄가스 사고 그런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있었지만요. 제가 반 지하 자취방을 구하면서 이런 걱정을 안하고 산 세상이었다는 거지요. 그때도 범죄자들 있었겠지만. 지금 느낀 건 너무 많은 책임을 개인이 알아서 지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개인적인 책임을 졌지만 상식적인 몇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문을 열어놓고 집을 비우면 안 되는 것 정도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미지의 공포를 느끼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오고, 더 심각한건 이 문제가 한국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파일을 통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퍼지는 거잖아요. 다 퍼지니까 공포심이라는 게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진행 문미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얘기하신 세대라는 게 이데올로기 인건데요. 집을 구하는 지역만 해도 비혼여성 1인, 20-30대 여성이 구하는 지역의 안전요건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 다를 것이고요. 우리가 안전을 체감하는 정도는 나를 비롯한 2인, 3인, 4인 가족이 있을 때의 공포와, 혼자 혹은 나와 연령대가 비슷한 여성들과 있을 때의 공포감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처할 수 있는 힘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소 그 불안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

할 때에는, 나의 안전함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껴야한다는 의미는, 내가 안전하게 살았으면 내 이후의 세대들도 안전한 공간에서 살아야하는 건데 그 시대를 만들지 못했다면 선배들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뒤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래도 혼자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거나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거듭할 때마다 그 두려움의 강도가 희석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연대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A

비단 불법촬영에 찍히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안전, 건강 문제와 관련된 고민거리가 많잖아요. 혼자 살았을 때 범죄에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지지기반이나 조연자들이 필요해요. 또 그런 경험들이 잘 공유가 안 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1인 가구를 그냥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해서 본인의 가정을 꾸리기 전의 지나가는 단계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것도 있어요.

진행 문미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그 불안 요소를 걷어내자고 모인 것이죠. 불안에 떨 것이냐가 아니라 불안한 것을 이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는 것이 이 집담회의 목적이예요. 말씀을 안 하셨던 분들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저는 불감증인 것 같아요. 혼자 살 때 그런 생각은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옆 건물에 있는 사람이 쳐다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런데 안 열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확실히 배달 음식을 받을 때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혼자 살다가 지금은 다 같이 살고 있는데 4인 가족이 살만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혼자 있다는 게 노출이 되어

도 두렵지 않은 느낌은 있어요. 사실 공간이 크면 몇 명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나래(가명)

저도 자취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10분 정도 올라가야 해요. 항상 퇴근하면 해가 지거나 밤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것이 없어도 뒤를 의식하게 되고 그래요. 또 밑에 집이나 주변 집 남자들이 있으면 더 의식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지만 성범죄관련해서 들은 게 있고 하나까 제 입장에서는 불안하더라고요. 한 번은 누가 자취방 문을 덜컥덜컥 열려고 했는데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랬다고 하지만 좀 이상했어요.

집주인이 막 드나드는 것도 좀 그래요. 도어락을 바꿔주고 비밀번호를 저보고 직접 설정하라고 해도 집주인은 마스터키가 있잖아요. 게다가 그런 경우도 들었어요. 집주인이 중년 여성분이신데 불법촬영범죄자로 몰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집주인 아들이 한 거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나서 전에 살던 사람이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 탐지해 보라는 얘기도 해요.

영호(가명)

사실 20대 미혼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보증금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그 여성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도 사실은 낙후돼있고, 이러한 조건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타운 같은 데를 갈 수도 없고, 결국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 저 혼자 싸우는 것밖에 안돼요. 집이 불안하면 먹는 것, 건강 등 여러 문제가 뒤따라오게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나마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안심귀가서비스가 있어요. 노인분 일자리랑 연계되어 있는데, 사실 고민되는 부분은 그럼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보호를 받으며 다녀야하나 예요. 하지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의 불안함도 있고, 이용했을 때도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욱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해야한다고 생각되고,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행 문미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가진 것이 별로 없는 20대의 안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늦게 오신 분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자취는 해본 적은 없는데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로망이 아니고 현실이었네요. 살아보고는 싶은데 사람마다 자취방을 보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저의 기준은 일단 치안이에요. 왜냐면 치안이 좋은 데 살아야 제가 뭘 해도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집에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또 집에만 있는 것도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남자였더라면 기준이 조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이라던지, 아니면 역세권이라던지. 그런데 여자다보니까 1순위가 치안인거예요. 여기서 현실타격이 왔어요.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법촬영범죄가 우리나라에서만 난리인건가요? (세계적인 문제이죠.) 또, 남자들에게 자취하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로망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자가 자취한다고 했을 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점들이 화나게 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자취한다고 했을 때와 여자가 했을 때 반응이 다르잖아요. 남자가 자취하면 그냥 아지트가 되거나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여자가 자취하면 그 공간이 성적으로 희화화되잖아요.

E

저는 학교 다닐 때는 통학을 했고, 직장엔 다니면서는 친구와 자취를 하다가 독립을 해서 혼자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살던 친구가 절대 혼자 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4명이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때는 4명의 마음이 잘 맞아서 재밌게 지내긴 했어요. 단점이라면 역에서 집까지 걸어서 가는 길이 되게 어두운거죠. 어느 날 한 명이 그 길을 걷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 친구가 약간 당찬 친구라 그 가방을 다시 뺏으려고 쫓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경찰서도 걸어서 10분 안쪽인데, 거기 혼자 가게 될 때는 걸어갈 거리도 택시 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단순히 안전이 아니라 여성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늦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평도 사실 안전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밤늦게 길을 걷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사실 정책적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안심귀가서비스 같은 것을 신청하기 좀

애매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D

집담회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산다는 것은 밥길, 사는 것, 먹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도 모두 다 두려움으로 묶여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해서 서로의 경험을 많이 공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그 두려움, 불편함, 힘들음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해나가야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행 문미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했던 인사가 감사하고 반갑고 즐겁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인사는 더 감사하고, 더 반갑고, 더 즐거웠습니다. 이 감사함과 즐거움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등한 젠더 부평 권역별 집담회,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일부 발언자의 성명을 알파벳으로 표기



Chapter VI

2018 평등한 젠더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청천권

1. 청천권 집담회
2. 녹취 내용

VI. 청천권

1. 청천권 집담회

1) 개요

- 주제 : (이주여성)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
- 일시 : 2018년 8월 24일(금) 13:00-15:00
- 장소 : 다올빛이주여성연합회(청천동 301-4)
- 진행 : 김정근 다올빛이주여성연합회 사무국장
서순아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 전문가 : 채보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지원센터장
- 내용
 - 출입국 정책 변경사항 이해하기
 -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이야기 나눔

2) 요약

○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이주민들의 어려움

-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는 가족의 생활기반과 경제적 안정에 많이 좌우 되는 편임. 이주민들의 관심 질문은 국적취득, 비자, 일자리 등의 의견이 많았음. 한국사회의 인간관계의 갈등과 같은 부분 보다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우선이었음.

○ 이주민의 경험하는 취업

- 한국에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어를 충분히 배운 후, 화목한 가정생활과 취업활동을 하는 과정을 권함.
- 단체 및 모임 활동의 경우 본국출신 친구들이나 가족모임이 많고, 지역사회 다른 한국인들과 접촉하는 빈도는 낮아 한국어능력 향상이 어려움.

-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유학생비자를 바꾸고 싶을 경우, 최소한의 기술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해야 다른 비자로 바꿀 수 있으며, 석·박사 학위를 갖췄을 때 비자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
- 관광 가이드 자격증 취득을 위해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조건이 있음. 실력 있는 이주민의 경우 2개 국어로 관광지 설명, 통역이 가능하여 가이드 실무를 소화할 수 있으나, 학력 제한으로 관광 가이드 업종에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6개월 정도의 간소한 교육과정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제도 보완을 요구함.
- 다문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조부모가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며, 한국인이 누리는 것 이상으로 이주민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세밀한 지원혜택이 있음. 또한 귀화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장치가 많음.

2. 녹취 내용

1부

진행 김정근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사무국장

집담회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 주최로, 부평 여러 단체들과 함께 문화 다양성 주제로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집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천권 외국인 정책과 생활의 이모저모를 주제로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그리고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합동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시면서 출입국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죠? 우리 다울빛에 모이는 회원들은 정착한지 십여 년 된 분들부터 초기 정착한분들까지 다양해서, 집담회 주제를 정하기 전 의견 수렴과정에서 국적취득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이주자 본인의 사연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전문가님이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2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순아팀장님께서 이주 여성분들과 이야기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

장님을 모시고 출입국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장

안녕하세요. 집담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거죠. 강의 같은 일방적인 설명보다 이민자 여성분들의 궁금한 사항 위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Q1

비자 관련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유학생 비자에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만약에 연장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장

지금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비자로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인가요? 알다시피 유학생 비자는 D2, 어학연수는 최장기간 2년까지 D4로 있을 수 있죠. 어학연수가 끝나면 D2 유학생 비자로 바꾸던지 해야 되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볼 때는 D4를 갖고 있는 어학연수도, D2로 유학생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때는 어학연수와 유학생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D2 중 대학과정 4년이 있고, 석사과정도 4학기, 박사과정 6학기도 있는데 모두 D2로 합니다. 그러면 대학교 석사 박사과정에 있는 D2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혹시 다른 비자로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 다른 비자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떤 비자로 바꾸고 싶은 건가 하는 거죠. 결혼일 수도 있고, 취직도 있을 거고. 투자 비자도 있을 거구요. 어떤 비자로 바꾸고 싶은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취직이요)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 학교를 마쳐야합니다. 일단 4년제를 마치고, D2 석사과정에 있던지, 박사과정에 있던지. D2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대학교는 마쳐야 다른 비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학교에 들어와서 2학년 쯤 되면, 2년이 남잖아요. 2년을 마치고도 취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외국인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어 삼성에 E7이라는 비자를 가지고 취업하는 외국인이 많아요. 언어차원에서 그 업무는 한국인이 잘 못해요. 근데 누군가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하면서 IT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자를 줄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비자를 주려고 하면 적어도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졸업장이죠. 그런 상황일 때 E7이라는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증빙자료가 없으면 비자를 발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즉 대학교를 마치지 않고서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전공을 마친 후 기술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고 나서 회사를 찾아야죠.

만약 제조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무역통상학과를 졸업을 해서 남동공단에 취직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 비자 심사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 무역학과를 졸업을 했으니 남동공단에 있는 이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하고 무역 교류를 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만약 안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E7이라는 비자를 발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무역 회사를 통해서 장사를 하려다 보니, 직접 수출을 하면 마진이 더 좋은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직접 수출을 하기위해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직접 수출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발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 E7이라는 비자를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학생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물론 전문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출입국에서는 외국인이 유학을 하다가 취직을 하려면 4년제를 나오고 그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취직했을 때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석사과정 이상은 꼭 전공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비자 발급이 되기도 합니다. 4년제 대학 정도는 전공을 많이 봐요. 무역을 전공해놓고 기술을 배우겠다는 것은 안 되지만 석사이상은 반드시 정확하게 전공이 일치될 필요는 없다. 자연계, 인문계 이정도만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쉽게 비자를 주긴 합니다.

Q2-1

다문화 아빠입니다. 장모님이나 장인 같은 경우 비자 신청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7살까지 됐고 1년짜리 방문비자가 나왔는데 이제는 3개월짜리가 나와요. 저희가 맞벌이를 해서 애들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힘이 들어서요.

그리고 예전에 아내가 한국어랑 중국어를 잘해서 관광 가이드를 했어요. 단, 관광 가이드 자격증은 4년제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 가지는데 자격증이 있어도 중국어를 못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내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두 가지 언어로 설명해줄 수 있지만,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은 설명도 못하더라고요. 이런 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집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돈은 더 많이 받아요. 결론적으로 옆에서 보조라도 할 수 있게 6개월 정도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있나 궁금해요. 앞으로 북한하고 남한하고 평화협정을 맺거나 통일이 되면 중국과도 교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광객도 많이 올 텐데 자격증이 없더라도 6개월 교육 이수증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장

비자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연관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문화 가족 F6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의 부모에게 어떤 비자를 주고 있는지, 연장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까지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한국 아이죠? 그 아이는 만 5세까지 양육한다는 조건으로 장인 장모 부부가 같이 올 수 있었죠. 장인 장모 중에서 한국에 올 입장이 안 된다고 하면 왜 못 오는지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신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여성이 오도록 했었죠. 올 초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계속 건의가 있어서 5살이다 보니 아직 학교도 못 들어갔다, 그런데 장인 장모를 되돌려 보내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만 7세까지로 올렸습니다. 근데 장모님 입장에서 태어난 아이가 많은 상황일 때, 동시에 여러 군데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중에 4촌 이내 다른 여성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신 가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보냈더라도 학교 다녀오면 누군가가 봐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국제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운다고 장인 장모에게 비자를 주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이러한 상황일 때는 일단 정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일입니다. 한국인들 역시 맞벌이를 하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잠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비자 정책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길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이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한국인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 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광가이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해서든,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구청, 시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단체로 의견을 모아서 글로 잘 풀어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아마 고려해볼 것입니다.

Q2-2

사실 한국인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그러나 다문화가정일 경우에 위험 부담률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장

7세까지 장인 장모가 와서 아이를 봐주는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많다보니 엄마도 돈 벌이를 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보완하면 어떨까 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아이는 하난데 장인 장모와 있고, 엄마도 있고, 사람이 많다고 아이를 잘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장인 장모 와서 아이를 제대로 보는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공장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일부의 목소리도 들어 주기 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2년 연장도 한 상태이고요. 또 장인 장모가 어디서 일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와도 가급적이면 조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이해는 되지만 계속적으로 비자를 발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 상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다문화 가족을 보고 얘기도 들었어요. 다문화 가족, 여성분들이 돈벌이가 급급해서 한국어도 잘 안되지만 일단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어가 더 늘질 않고 남편, 아이와도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어가 충분하지 못해서 직장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남편에게도 대우 못 받고, 유치원 아이와도 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정이 원활하고 자녀교육이 잘 돼야한다고 볼 때, 우선 초창기 몇 년간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원활할 때 취직도 하면 모든 것이 더 선순환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3-1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제 국적을 바꾸고 싶은데 확인서를 요청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어요. 꼭 인도네시아까지 다녀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장

우리나라에서도 본인과 관련된 증명서류, 특히 범죄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가야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그럴 겁니다. 질문자께서 한국에서 20년 살았지만, 살기 이전의 기록들은 인도네시아에 있잖아요? 그럼 결혼 후 한국에서 산건 20년인데, 그 전에는 혹시 범죄를 저지른 게 없느냐 해서 확인 차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본인이 방문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가야하는 게 맞죠.

(인도네시아는 머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정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나 우리나라에서도 본인이 아니면 해주질 않습니다.

Q3-2

제가 출입국사무소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몇 년 있다가 경찰서에 가면 떼 준다고 해서 몇 년 뒤에 갔더니 인도네시아에 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얘기해주면 좋았을 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 하냐는 얘기였어요. 인도네시아에 또 가야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혹시 한국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한국의 서류들을 다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이상 거주한 한국인은 경찰서 가서 끊을 수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장

그럼 한국에 있었던 범죄경력은 경찰서로 가면 되고, 한국에 살기 이전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가서 확인서를 끊어야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치안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4

이혼과 관련해서 여쭙보고 싶어요. 남편과 아이를 통해서 F6 비자 연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혼 해서요. 이때 비자를 어떻게 할지, 계속 살 수 있을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장

한국에 와서 F6 비자를 받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하게 다 같이 잘 사는 경우, 둘째는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경우, 셋째는 아이도 없고 같이 살지도 않지만 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이 세 경우에 한해서 F6 비자를 유지해줍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비자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에 와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비자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근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안하더라도 두 번째 경우인 아이는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증빙을 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그 비자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Q5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중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은 중국에 계세요. 그럼 시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를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장

단기로는 방문 비자로 최대 9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인데도 그런가요? F4 비자는 안 되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동포일 때 가능합니다.

(동포인데 왜 중국에서 자꾸 안 되죠?)

혹시 예전에 뭐 잘못된 게 있나요?

(한국에 오고 출국할 때 자진신고 하고 나갔어요. 도장도 받고.)

자진출국을 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불법체류를 했다는 거네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판단 할 겁니다. 자진출국을 할 때 자진출국 기간에 가면 금지를 면제해준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금지가 들어갑니다. 6개월 또는 1년, 2년 들어가는데, 자동으로 풀리긴 해요. 그런데도 리스트가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비자를 잘 안주려고 하죠. 조건은 분명 F4 조건에 부합하는데 위처럼 그런 기록들이 계속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 3년 지났어요)

불법체류는 몇 년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탄원서 요청을 해야죠. 그럴 때 어떻게 효과가 있냐면, 탄원서를 쓰는 며느리가 한국에 있으면서 다른 이주자보다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증빙서류를 붙이면 장관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주세요. 혼자서 말고 여럿이서 힘을 합쳐서, 또는 도움을 받아서 요청하세요.

2000년도에 70살의 동포가 와서 난민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동포가 무슨 난민신청이나 그랬는데 저한테 찾아왔을 땐, 불법체류 15년이었어요. 출입국공무원에서 잡힐 것을 감수하고 저한테 와서 얘기 하더라고요. 과거에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 92년도 이전에 88올림픽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국에 갔더니 공안에서 알았대요. 하지만 수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으니 구속인거예요. 그렇게 5년을 감옥에서 지내니 삶이 망가졌어요. 그 이후에 너무 억울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서 인생 보상해달라고 경찰이든 어디든 가서 말하고 다녔는데 다들 몰라라했대요. 그 전에 있던 이야기들을 전부 모르는 상태로 15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도 빠지 말고 글로 탄원서를 쓰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공안에서 걸려서 안 좋게 된 거라고요. 결국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냈고 장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시를 했어요. 공문이 갔지만 불법체류를 15년씩 해놓고 무슨 탄원서야 라고 했대요. 다시 저한테 찾아와서 대안으로 언론을 동원해보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방송을 타게 됐고 청와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재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며느리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두드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Q6

F4 비자를 가진 분인데, 재혼하셨어요. 남편은 삼촌이고, 이 분은 재혼이에요. 그 전에 7살짜리 남아가 F1으로 한국에 있고, 본인이 F4로 해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올해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8개월 됐는데, 두 분 사이에 문제가 계속 있어서 가정폭력으로 쌍방 신고를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불기소처분으로 3건이 입건 됐대요. 그걸 남편이 출국사무소에 얘기해서 강제출국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9월 19일까지 나가셔야되는데 이럴 경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장

둘이 싸우는 과정에 일단은 F4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결혼 비자에 해당되잖아요. 거기서 F6로 안 바뀌줄 뿐이지 F6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인데, 남편하고 둘 사이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관계가 안 좋아서 싸우다가 동포 여성이 가정폭력 죄가 있는 걸로 됐네요? 쌍방으로. 근데 그 결과가 출국명령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아 죄가 있다는 걸로 판정이 난 것 같네요.

(불기소처분이 1년에 3번이 나오면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기소처분이 재판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과실이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3번씩이나 있으니 죄가 있는 걸로 해서 행정적으로 강제출국을 시키곤 합니다. 그러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는 남편이 키우나요?

(아니요, 같이 키우겠다고 했어요)

혹시 이혼소송을 한 건 아닌가요?

(유예를 시켜볼 생각으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혼소송이 끝나면 또 나가야된다고 해서요)

아뇨. 이혼소송을 이기면 되죠. 이혼소송을 하면서 자녀양육권을 주장해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키워야할 경우 결혼 비자가 유지가 되니까요. 지금 결혼 비자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F4라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결혼 비자라 참작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이혼소송을 하면서 자녀양육권을 같이 주장하셔야 되겠네요. 우선 9월 19일까지 출국명령이 떨어졌는데 이혼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증명서를 떼면 비자 연장이 계속 가능합니다. 그렇게 계시면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남편이 잘못했다거나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했다는 걸 어필해야 하는데, 불기소처분 3번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사실 이민자를 보호해야하는 건 맞지만 모범적이지 않은 이민자까지 국가에서 케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을 하셔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소송을 하고 자녀양육권을 주장하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고 이혼을 협의이혼이 되더라도 자녀양육권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8개월이기 때문에 아마 신랑 쪽에 키워라 그런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아무튼 판사는 웬만하면 아이가 어릴 때는 양육권을 엄마에게 주려고 해요. 단 문제는 경제력의 여부입니다. 사실 양육권을 엄마에게 주려고 해도 돈벌이를 할 수 능력이 충분하다는 증빙자료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으로 판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랑 없이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하시면 가능하죠. 아이 키우는 사람은 추방하지 못합니다.

Q7

아는 사람 한 명이 남편과 사별했어요. 아이가 아들 한 명이고 영주권 신청했는데 기각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도 잘 몰라서요. 근데 이 분은 지금은 F6로 살고 있는데 애기가 한국 아이라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자격이 안 되지 않나요?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장

지금 이민자 같은 경우에 재산증빙을 보통 6천만 원 요구합니다. 근데 결혼 이민자는 3천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도 재산이 3천만 원 전세, 아니면 저축금, 이런 것을 요구하지만 그게 없어도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왔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냈다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받아줍니다. 꼭 3천만 원이 있지 않더라도 편의를 봐주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신랑과는 사별했지만 경제활동을 했을 거잖아요?

(지금 사별한지 얼마 안돼서 지원받으며 살고 있어요. 지금 파트타이머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내성적인 사람이라 좀 어렵네요.)

그럴 경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도 못하고, 아이도 키우고, 신랑도 사별했는데 영주권을 달라고 하면 조건이 잘 안돼요. 재산 조건이 3천만 원인데, 그게 안 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능력, 경제 활동 능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 결국 세금

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법무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열심히 사려는 사람에게 국적을 주려고 하지 그게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Q8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장

귀화시험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사무소 자체에서 치고 있는 귀화시험은 올해 3월 이전에 국적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귀화시험을 치게 합니다. 근데 결혼 이민자는 필기가 면제이고, 면접심사만 있습니다. F6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필기시험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면접심사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면접심사도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까지 마치면 면접심사도 면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장치를 제공해줬는데 여러분은 하지도 않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른 단체에서 공지를 하던지 조건이 다 비슷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심히 했으면 거기서 우리 쪽에 4단계 연계시험 중간평가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중간평가를 봐서 60점을 넘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똑같이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주죠. 단 5단계인 귀화는 70시간 공부를 별도로 하는 건데 그것은 문화 관련이니 공부를 해서 60점을 통과하면 면접심사 면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정도면 충분히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서 면제를 해드리죠.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기본 교육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의무교육 9년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1년이라도 공부해본 적이 있나요?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아이가 있으니, 2년 살았으니 국적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면접심사가 어렵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8살, 9살 됐는데 엄마가 공부에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빠른 길만 찾다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주시고 다른 길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국적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몇 년을 걸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으니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영주권 전제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영주권 없이 국적 신청도 안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

우대는 앞으로 점차 사라질 겁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데에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가진 채로 몇 년 지난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돼서 국적 받을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의 기회를 잡으세요. 한국어 가르쳐주는 기관도 많으니 공부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지금은 늦어 보이는 길이 나중에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Q9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10년마다 갱신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장

그동안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갱신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그러다보니 영주권이 만능이더라고요. 갱신 제도를 고려하게 된 게 영주권도 어차피 한국 사람이 되기 전에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한번쯤은 중간에 확인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원래 5년으로 하려다 10년 정도로 해서 영주권을 줘도 될 정도로 충분히 훌륭하게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영주권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점점 외국인을 살기 어렵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넘치거든요. 예전에는 외국인이 없어서 결혼만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인과 난민이 넘쳐서 저희는 도움이 되는 분들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것은 흐름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영주권을 가지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나요?)

네 처음 영주권을 얻을 때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결혼 이민자는 직장생활을 해서 먹고 살고 있고, 국가의 도움 없이 내가 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3천만원이 당장 없어도 계속 영주권을 줄 수 있습니다.

Q10

캄보디아 출신으로 귀화했던 제 친구가 본국의 남자와 재혼한 상태입니다. 친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입국을 못하고 아이가 있는 상태인데, 언니나 여동생은 입국이 가능한데 남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들어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여성이어야 가능합니다.)

Q11

저는 F2이고 남편이 영주권 있어요. 지금 남편은 도망간 상태인데 남편이랑 이혼할 경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F2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F2 비자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영주권자하고 헤어졌나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남편이 도망가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라도 만나서 헤어지면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장

F2는 영주권자랑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건 결혼 이민자가 아니에요. 결혼 이민자는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어야 되니까요. 결혼 이민자는 F6인데,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F2라는 거죠. 결국에 결혼 이민자에게는 완화된 정책을 펼치지만, 두 분은 둘 다 외국인인데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면, 이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만 방법이 있긴 해요. 이혼을 하고 다른 분과 결혼을 하셔야합니다. 최소한 영주권이 있는 사람으로요.

Q12

저는 한국 온지 8년 차고 영주권은 있고 국적은 없어요. F5예요. 하고 싶은 질문은 제가 지금 중국 이름인데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채보근 이민통합지원센터장

지금 영주권 있잖아요? 영주권 여권하고 외국인 등록증에 국적을 바꾼 것도 아닌데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국적하고 생년월일하고 이름, 여권번호 이런 것을 바꾸

는 걸 등록사항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여권의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권에 있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 쪽에 신청하면 당연히 바꿔줍니다. 문제는 중국 대사관과 정부에서 이름을 바꿀 수 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여권에 이름은 버젓이 놔둔 외국인인데 ‘나 이름 바꿨어요’ 써오면 저희가 바꿔드릴 순 없습니다. 그 쪽 국가에서 발급하는 여권, 호구부의 이름을 바꿔 오시면 그것을 근거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름을 바꿔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여권은 영어로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중국 이름과 한국 이름이랑 같은데 그게 싫어서 한국이름만 바꾸고 싶어요)

그건 안 됩니다. 중국 분들의 여권에 중국 발음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저희는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된 것을 한국어로 읽었을 때가 이름이에요.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이름을 한국에서 바꾸려고 하면 국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국적을 받을 때도 처음에는 위에 영문으로 표기된 것을 한국어로 읽었을 때로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받고 난 뒤에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되면 개명이 가능한데 국적이 없다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2부

진행 서순아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팀장

2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부평구문화재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문화다양성 의식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울빛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함께 만나보니까 좋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진행할건데, 먼저 우리가 우리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울빛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요. 이어서 이주여성분들이 한국에서 사시면서 이런 건 너무 힘들었다, 이런 건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문화센터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 수업이고요, 두 번째는 공부하기 위한 검정고시반, 요리교실,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먼저 행복해야 하니까 어려운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상담하고 사례 관리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언어, 집에서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센터에서 집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혹시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임신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 국장님이 다울빛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김은미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회장

안녕하세요? 저희 다울빛은 다문화센터와 사업이 비슷합니다. 한국어 가르치고, 네일아트랑 제과제빵 등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인터넷에 다울빛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정보가 실려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2회째 다문화 축제를 엽니다. 부평구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각 나라 춤도 추고 악기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공원에서 9월 16일 일요일에 하니까 사진 찍어서 친구들과 같이 오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통 옷이나 한복을 입고 오셔도 되고요.

진행 김정근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다울빛은 민간이 운영하는 축제, 모든 활동을 운영위원단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는 항상 열려있어요. 같이 몰려다니고 놀러가고, 이게 저희들의 운영방식에요.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다문화센터나 다른 기관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요일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직장인이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서순아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팀장

우리 한번 한국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한국 사회에서 어떤 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지를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출입국사무소에서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것, 이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다, 해주고 싶다 하는 것부터 자유롭게 이야기해볼까요? 내 이야기 말고 옆 친구의 이야기를 해 주세요!

-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 행복했대요. 가족과 같이 놀아서 행복하대요.
- 제 옆에 친구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대요. 그리고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너무 힘들었대요.
- 언니는 애들이 말 잘들을 때 행복하대요. 또 남편과 아이들 키우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힘들대요.

진행 서순아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팀장

들어보니까 내가 행복한 것도, 힘든 것도 가족 때문이네요. 결국 우리는 가족 때문에 살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힘들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노하우를 이야기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됐어요.’ 하는 것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A

말 안들을 때 아이 담임 선생님께 상담 받거나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 지 물어보면,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아동심리교육, 놀이교육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나 말투 등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셨어요.

진행 서순아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팀장

남편하고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 분, 어떻게 해결했나요?

B

저는 항상 남편과 싸웠을 때, 남편과 밖에 나와서 해결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내 부모의 사이가 안 좋다는 생각을 해서 충격을 받으니까요. 아니면 적어도 아이가 잠들었을 때 이야기를 해요.

진행 서순아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팀장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갈등이 많을 때, 꼭 싸우지 않는 것 보다는 싸우되 잘 싸우는 것이 좋잖아요. 잘 싸우기 위해서 아이 앞에서 싸우지 말고, 바깥에 나와서 싸우자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또 이렇게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이렇게 했더니 참 좋았다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 계세요?

C

싸우고 나서 잠깐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감정을 추스른 다음에 다시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요.

진행 서순아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팀장

너무 화가 나있으면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문제가 커지니까 서로 시간을 두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아이들이 없을 때 대화를 하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가장 힘이 되는 것들이 가족이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힘이 또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가 또 취업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경제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한국 사회의 결혼 이민자로서, 외국 이민자로서 취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B

취업을 하려면 언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C

의사소통, 인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법이 많이 다르고 중요하다고 봐요. 출근할 때 처음에는 문화가 달라서 아침인사, 점심인사, 저녁인사를 못하니까 저는 스트레스 받았어요. 외국 사람은 그냥 처음에 만났을 때만 인사하는데, 한국 사람은 밥 먹기 전, 먹은 후에도 인사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A

우선 토픽 자격증을 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보조적인 한국어가 아니라 그 위 단계의 조금 전문성이 있는 것이예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토픽이 필요한데 거기서 걸려요. 코트라에서 주관한 무역교육이 있었는데 저는 방통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토픽 자격증이 없어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토픽자격증 따서 다시 제출했어요. 제 생각에는 언어 능력은 우선순위로 따고 난 후,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행 서순아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팀장

혹시 자격증 취득 말고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B

단기간에 직업훈련을 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니까 노동부에서도 형편에 따라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격증도 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떤 자격증을 따셨어요?)

컴퓨터 회계 자격증이요. 한 프로그램 밖에 못 들어서 신청할 때 잘해야 해요. 컴퓨터도 기본적인 ITQ도 있고 컴퓨터활용능력도 있잖아요. 또 어떤 학원은 기초하고 고급, 두 개의 강좌가 한 프로그램으로 묶여져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화로 직접 잘 알아보시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은미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회장

부평에 컴퓨터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두 곳이 있는 것은 아시나요? 청천2동 주민센터 근처 청천 e배움터와 백운역에서 가까운 백운e배움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 이민자만을 위한 교실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결혼 이민자들이 신청하면 다른 분들과 같이 들을 수 있어요. 컴퓨터는 각자 개인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고 같이 듣는 것도 무료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진행 서순아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팀장

지금까지 말한 것과 조금 다른 게 기관,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센터 같은 곳에 가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교육도 많이 있으니깐 그런 것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결혼 이민자의 취업과 관련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했어요. 정책을 만들어야 혜택을 받는데 정책 자체가 별로 없다보니까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 어디에 물어 봐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정해져있으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연 토론회였어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도 이런 거였어요. 우선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어를 배워라. 처음부터 빨리 돈 벌어야 되니 아무데나 가서 취업을 하면 회사에서 언어가 안 되니 일을 못하고, 월급을 안주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급하게 생각하는 대신 자격증도 취득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학력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니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방안 같습니다. 토론회에서 길게 나눴던 얘기가 우리는 10분 내에 다 나왔어요. 역시 경험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고, 서로 같이 행복하게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모여서 좋은 일자리,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법 등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D

서울은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까지 열고 있어요. 근데 인천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만큼 똑똑해져야 되고 앞장서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지만, 한때 바리스타 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배웠지만 별로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나이가 들었고 그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것을 하려면 그런 것을 하는 시간에 토픽을 따고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진행 서순아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팀장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유익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 일부 발언자의 성명을 알파벳으로 표기



Chapter VII

2018 평등한 젠더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부개·일신권

1. 부개·일신권 집담회
2. 녹취 내용

VII. 부개·일신권

1. 부개·일신권 집담회

1) 개요

- 주제 : 중년의 사춘기, 갱년기 여성건강
- 일시 : 2018년 8월 29일(수) 19:00-21:00
- 장소 : 인천평화렛츠(부개동 327-11)
- 진행 : 조옥화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내용
 -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몸의 이상 신호, 건강한 갱년기 나기
 - 마음에도 근육이 붙도록 정신 건강 단련하기

2) 요약

○ 갱년기의 신체적·정신적 증상

- 폐경기는 50세 전으로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생리혈이 나오지 않는 후로부터 1년 시점을 완경이라고 함. 정확한 시점은 없고 평균 3~5년 동안 그 과정을 거침. 1/3 은 심각한 증상 없이 갱년기가 지나감.
- 흔한 정신적 증상으로 기억력 감퇴고 분노, 감정조절, 우울, 불면 등이 존재하며, 폐경과 함께 남성보다는 여성이 갱년기를 겪는 경우가 대다수임.
- 한국 여성의 정신건강 중 불안장애가 9.3%로 남성과 다른 여성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신체적 현상이지만 10-30대에는 '생리중이냐?' 라는 말에 이어 40-50대에는 '갱년기냐?'라는 말로 희화화되는 등 남녀의 다른 신체조건이 혐오표현으로 공격되는 경우가 있음.
- 여성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본인이 겪기 전까지 신체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전적으

로 공감하기 어려움.

○ 갱년기 신체적·정신적 건강 단련법

- 갱년기를 인지하고 지나친 행동과 과함을 줄여나가야 함. 일상 속에서 몸에 무리 가지 않게 움직이며 신체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지나칠 정도로 정서적인 관계를 중요시 하는 것을 피해야 함. 기대하거나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음.

2. 녹취 내용

진행 조옥화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알고 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쭙어볼게요.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남자로 한 번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해보신 분계신가요? 이유가 뭘까요?

- 저도 막 소리치고 살고 싶어요.
- 여자로는 한번 살아봤으니까. 남자로 사는 걸 이해해보고 싶어요.

진행 조옥화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그러면 남자랑 다르게 여자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임신, 출산, 육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손드신 분 중에 남자로 살면 여성으로서 임신, 출산, 육아 이런 부분은 덜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A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게 가정 살림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도맡아 하기 싫어요. 육아는 해도 살림은 진짜 하기 싫어요. 남자들은 직장 생활만 하면 되고, 그건 사회에서 자신을 드

러내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남자도 집안 살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로 한 번 태어나보고 싶어요.

진행 조옥화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볼게요. 나는 요즘 내가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4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 우리는 다 같이 동지예요. 사실 갱년기를 장년기에서 노년기, 지금은 노년기를 75세까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을 갱년기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다 같이 동년배로 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갱년기에 대해서는 평소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갱년기가 질병인가요? (아니요) 근데 여러 가지 증상은 있잖아요.

B

그게 사춘기랑 같은 기간이겠죠. 우리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갈 때 사춘기를 거치잖아요. 좀 이상하고 예민하고,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숙이 덜 되죠.

진행 조옥화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갱년기도 사실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은 임신 출산 육아를 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게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소위 말하는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연의 인간으로서, 여성이자 인간으로서 자기 삶을 사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C

저 같은 경우에는 52세부터는 생리가 불규칙적이었다가 54세부터 없어졌거든요. 처음 느꼈던 것은 여성으로 사는 삶이 끝나고 완전히 할머니로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슬픈 감정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듣고, 공부도 하면서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이고, 그 과

정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여성의 신체기능을 벗어던지고 자유인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모르는 게 있어요. 호르몬 치료도 병원 가면 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사람을 만났을 때 왜 땀을 흘리냐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이 흘렸어요. 근데도 저는 호르몬 치료를 안 받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 생각했어요. 나중에 어떤 선생님이 병원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계속 먹는 것도 아닌데 미련하게 왜 그랬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행 조옥화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갱년기의 가장 뚜렷한 신체적 특징이 무엇이죠? 맨 처음에 신체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월경이요) 월경이요? 월경이 없어져서 폐경이라고 그러죠. 그 경이라는 게 지날 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월경이 매달 지나가는 것인데, 완수하는 거예요. 이제 완경기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폐경기는 폐기했다는 뜻이고 완경기는 완수했다는 뜻으로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으로써 여성이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여자의 생리 주기를 보시면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볼록 올라온 부분, 20대 때 여성호르몬이 극대치인데, 임신한 것 같죠? 이게 7년 주기로 보고 있는데 사실 28세에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는 서서히 노화한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49세 때 폐경이 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1/3 정도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도 해요. 혹시 갱년기 아무 느낌 없이 편안하게 가고 계신 분 있나요? 폐경 하는 것 외에 다른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통계적으로 1/3 정도는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성 호르몬이 올라왔다가 줄어듦, 줄어드는 시기에 다른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를 먹으면 남자는 여자 같아지고 여자는 남자 같아진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그게 생리적 관점에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성호르몬이 줄어드는 대신 남성호르몬이 올라오고, 남성은 반대로 되니까요. 하지만 폐경기는 50세 전으로 해서 30년, 40년, 처음에 규칙적으로 일주일 정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불규칙해지고 어느 날 끝나서 나오지 않게 되죠. 그로부터 1년, 그때 시점을 완경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시점부터 딱 몇 년, 그런 정확한 시점이 아니라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로 4~5년 동안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1/3은 심각한 증상 없이 갱년기가 지나갑니다.

B

저는 갱년기 현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울하고 화가 나서 주변에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갱년기 현상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행 조옥화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유년기에 잠재되어 있던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한 증상은 기억력 감퇴가 있어요. 자주 피곤하고 늘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의 변화를 겪습니다. 통계적으로 80~90%가 겪는 흔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밤에 땀이 많이 나고 얼굴에 열 올라오는 것은 가장 적게 겪는 증상이네요. 보시면 분노, 감정조절, 우울, 불면 등 정신적인 증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 혈관장애는 피로감, 복통, 현기증 증상이 있고 수십 년 동안 몸을 썼기 때문에 퇴행성관절염 같은 것도 서서히 오게 됩니다.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서 끝까지 가고요. 그 다음 질 건조, 골다공증, 피부 노화, 요실금, 비뇨가 있습니다. 팔약근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심혈관 질환은 원래 고혈압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연세를 많이 드시면 심혈관 질환이 나오곤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실질적으로 완경이 되고, 그 다음 아이들이 자립하고 부부만 있어서 집안 살림은 단조로워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집안 내에 어르신 모셔서 간호하고, 이런 피곤함. 그리고 이게 기억력 감퇴와 겹쳐져서 우울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 우울증이 심해질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C

저는 갱년기가 온 것 같은 게, 요즘 들어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운동을 조금만 해도 지치고요.

진행 조옥화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갱년기 증상질환을 보면 골다공증, 비만, 살이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나이 먹어서 운동량, 기초대사량도 떨어져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으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갱년기 이후 여성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유방암도 조심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나이 75세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르신들은 뼈가 부러지면 잘 안 붙으세요. 특히 빙판길에서 골반 부러지시면 꼼짝도 못 하고 누워계시다 폐렴이 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 적절한 햇빛, 비타민 섭취가 필요해요. 참고로 비타민 D는 뼈뿐만 아니라 모든 신진대사에 좋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은 생선, 우유, 치즈, 요구르트, 달걀 등이 있지만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카페인도 들어가 있는 홍차, 사골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커피 한잔은 어떨까요? 하루에 2~3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갱년기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감정, 기억력, 집중력에 대한 장애는 적다고 나와 있네요.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비만을 보시면 체중과 지방이 증가하는데 원인은 활동량 감소, 근육량 감소, 그러다 보니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갱년기 비만은 안면 홍조, 심혈관 질환을 겪게 됩니다. 살찐 사람들은 겉에 표면만 살찐 게 아니라 내장이나 혈관에도 지방이 축적돼있을 가능성이 높아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유방암 위험도 증가하니 체중 조절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 2회 이상 에어로빅, 걷기, 스트레칭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B

갱년기가 오면 호르몬 처방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진행 조옥화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호르몬 요법에 대해서는 전에는 대부분의 갱년기 여성한테 호르몬 처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증상이 심한 경우, 개인의 문진이나 진찰을 통해서 처방유무를 의사들이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보통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권고안을 보면 의사들은 아무래도 호르몬을 처방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 가시게 될 경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호르몬 치료를 많이 받던데

보통 50대 초반에 고려를 하고 그 치료를 받으면 완경 증상을 완화시키고 빈혈, 피부 탄력, 대장암 발생률 감소, 생식기 위축을 예방하고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경을 하는데 호르몬 치료는 언제 시작하는 게 좋냐는 질문에는 시작할 때,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시작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발생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고들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실제 연구가 진행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호르몬 치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있을 경우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담낭 질환, 혈전정맥염, 간 질환,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 자궁내막암, 내막증식증, 유방암, 이런 분들은 호르몬 치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A

아는 사람이 자궁근종으로 병원에 갔었는데 적출도 고려하더라고요.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해서 걱정이요. 자궁을 떼어내라고도 한하는데, 저한테도 이런 상황이 닥칠까 싶어서 걱정되더라고요.

진행 조육화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자궁근종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4 정도만 증상을 느끼고, 수술여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하게 되요. 보통은 병원에 가면 자궁근종은 자궁적출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기도 낳았고 별로 쓸 데 없으니 그냥 자궁 없애시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병원에 갔는데 우연히 자궁근종이 3개가 있다고 해서 수술을 잡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산부인과 갔더니 거기서는 이것은 폐경상태니 조금 기다려보고 더 퍼지면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더니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심각한 상황 아닌 다음에는 너무 급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적출을 해도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호르몬도 있고 자궁 경부, 난소, 방광과 연결돼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도 나오고 같은 혈관을 통해 피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오르가즘도 그렇고 잘못하면 신경도 건드릴 수도 있어서 자생이 가능한 한 모든 장기들은 그대로 살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C

아까 말씀하신 유년기 정신적 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진행 조육화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유년기 갈등 제거기능은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 문제가 그동안의 가정생활로 인해 억압되어 있다가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그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부간 문제가 표면화 되요. 그래서 심신의 과로, 상실감, 용모의 변화, 젊음의 상실감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할게요. 이탈리아에 로제트라는 마을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로제트 마을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있는 주에 가서 사람들이 웬만큼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을 계속 부른 거예요.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다른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질병 사망률이 훨씬 적은 거예요. 심지어 담배도 피고 비만도 있는데요. 자살이나 알코올중독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유전, 환경, 운동, 식생활 등을 다 조사했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요. 단지 자기네끼리 공동체로 예전에 저희가 서로 도왔던 것처럼 살았던 거죠. 또 다양한 모임이 있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있었어요. 결국 장수하는 법은 좋은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같이 운동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함께 지내고 생활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빈집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애들은 독립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정신없고, 혼자 집에 남겨짐에 따라 겪는 우울증인데,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더 많고, 정신과를 찾는 대다수의 환자가 40대에서 60대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정서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의 경우에 첫 번째 처방은 남편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 두 번째 처방은 사랑의 힘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것, 세 번째 처방은 그래도 같이 사는 것이 제일 낫다 라는 것입니다. 즉 너무 기대하거나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야한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도 나와 너는 잘하고 있어’의 마음다짐과 함께 무언가를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에 준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는 여성을 좀 더 지혜롭고 당당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열정과 영혼이 다시 불타오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30세에 형성되고 40세에 변화하며 50대에 완성되니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점차 완성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갱년기에 특별히 힘들었던 점이나 잘 극복했던 점이 있을까요?

D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매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변화가 큰 것 같아요. 예민해지고, 특히면 잊어버리면서 불안해지죠. 나이가 먹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니까, 노후를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E

저는 몸이 30~40대보다 무겁고 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젊을 때와 비교가 되니까 힘들어요.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그러면 여성들이 직장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나요?) 한 60대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잘 안보이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다보니 더 위축되는 것 같아요.

진행 조옥화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경로당을 가시는 건 어떠세요. 경로당은 언제쯤 가는 게 좋을까요?

F

요즘에는 70대 후반, 80대는 되어야 가지 않을까요? 요즘 75세 밑으로 가면 되게 어려워. 아파서 누워계시는 70대 어르신들은 쑥스러워하고 불편해해요. 80대 중반 어르신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 70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남의 손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어렵다고 생각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이원숙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제가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잘 죽는 거예요. 지금 주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갱년기를 거쳐서 노년기로 가는 건데 노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노후의 끝은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것인데, 제가 얼마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어요. 자기가 의식이 없어지거나 뇌사상태일 경우, 무의미한 연명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걸 해놓지 않으면 자손들이 곤란한 경우가 생길 것이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썼어요.

G

그게 동사무소에서는 안돼요. 인천에는 세 군데만 돼요. 건강보험공단, 부평보건소, 웰다잉협회에 본인이 직접 가서서 쓰시고, 그걸 인터넷에 국가연명치료협회 센터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의식이 없을 때, 의사들이 그곳에서 확인을 한 후에 어떻게 할지 정하게 됩니다.

H

나이가 60, 70 넘어갈 때쯤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30대는 상관없지만 60대 정도 되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사고, 범죄, 질병에 노출되었겠어요. 그걸 다 거쳐서 60대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아무도 또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어머니를 5년 전에 저 세상에 보내드렸는데, 막판에 병원 갔을 때 많이 느꼈어요. 일단 쓰러지면 어르신은 응급실을 통해서 중환자실을 가요. 병실에 있다가 회복이 돼서 나온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사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중환자실에서 꿈쩍 못하잖아요? 소변이 마려울 때도 의식은 있는데 꿈쩍 못하고요. 물론 환자라고 볼 때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 상태니까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그래서 죽어도 중환자실에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2~3개월 동안에 자기가 평생 동안 쓴 의료비의 반 이상을 쓰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박양희 인천평화렛츠 대표

갱년기 얘기에 이어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갔네요. 시간 관계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중, 마지막 권역인 부개·일신권 집담회가 일단락 났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 여성 건강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부 발언자의 성명을 알파벳으로 표기하였으며, 문답형식으로 재구성



기획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황유경 본부장 김유정 기획조정팀장
정책담당	노수진
업무지원	고다윤, 박형권

공동 기획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김은미 회장, 김정근 사무국장
부평공예마을	김광자 대표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순아 팀장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	이병철 대표, 권인순 본부장, 김현미 교육팀장
우리동네희망마을	이용우 사무국장
인천여성민우회	문미경 대표
인천평화렛츠	김영미 운영팀장

부평구문화재단 정책 2018-01

평등한 젠더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처	부평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부평아트센터 내 bpcf.or.kr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록된 내용을 전제하거나 활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